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제1기 활동 보고서

2012.10

목 차

제 1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개요	1
제1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3
제2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8
제 2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19
제1절 문화바우처사업	21
제2절 여성안전분야	54
제3절 도시공간·환경분야	69
부 록	125
부록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	128
부록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지원신청서	129
부록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130

제 1 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개요

제1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제2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제 1 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개요

제1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이란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하여 시민 준전문가 집단이 실행하는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정책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성별에 따른 정책 사업 수혜 현황 및 욕구 파악과 성평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집행 방법의 모색을 고민하였음.
- 정책의 집행자인 공무원이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이번 모니터링은 공무원이나 전문가처럼 정책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는 없으나, 정책 사업 현장에 나가 직접 수혜자들 및 수행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이 내놓는 정책 개선안을 성인지적으로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특징을 가짐. 모니터링단은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된 정책 사업의 개선안을 정책 수혜자들 및 시행자들과 직접 만나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임.
- 모니터링단의 모집은 공개 방식을 택하되, 성인지적 감수성과 지식, 그리고 정책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역 시민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단이 운영된다면, 대전시 성 주류화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생활에 근거한 성인지 정책을 발굴하며, ‘정책프로슈머’로서의 여성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의 또 다른 특징은 정책 멘토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임. 모니터링단은 성인지적 정책 패러다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 어떠한 정책 사업을 이해하고 성인지적으로 평가하며,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들을 정책 전문가, 성 주류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 멘토를 구성하고, 정책 영역별로 멘토를 배치하여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음.
- 공무원과 전문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는 것이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이며, 이는 선정된 시민 준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실시됨. 참여와

관찰을 특징으로 하는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평가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함.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단 모집기간 : 2012년 6월 18일 ~ 7월 3일
-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구성됨. 구성 및 운영의 주체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맡았으며, ‘문화바우처’, ‘도시공간·환경’ 과 ‘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였음.
- 모니터링단의 구성에 있어, 연령과 다양한 배경도 고려됨. 문화바우처사업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이용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전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 문화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문화재단으로부터 추천 받아 모니터링 원으로 참여하게 하였음.
-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단은 6월 한달 간 홍보와 모집 기간을 거쳐 16명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모니터링단은 이틀 간의 아카데미 과정을 거쳐 ‘대전 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됨.
- 모니터링단은 본인 희망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영역 중 한 영역에 배정됨.

<표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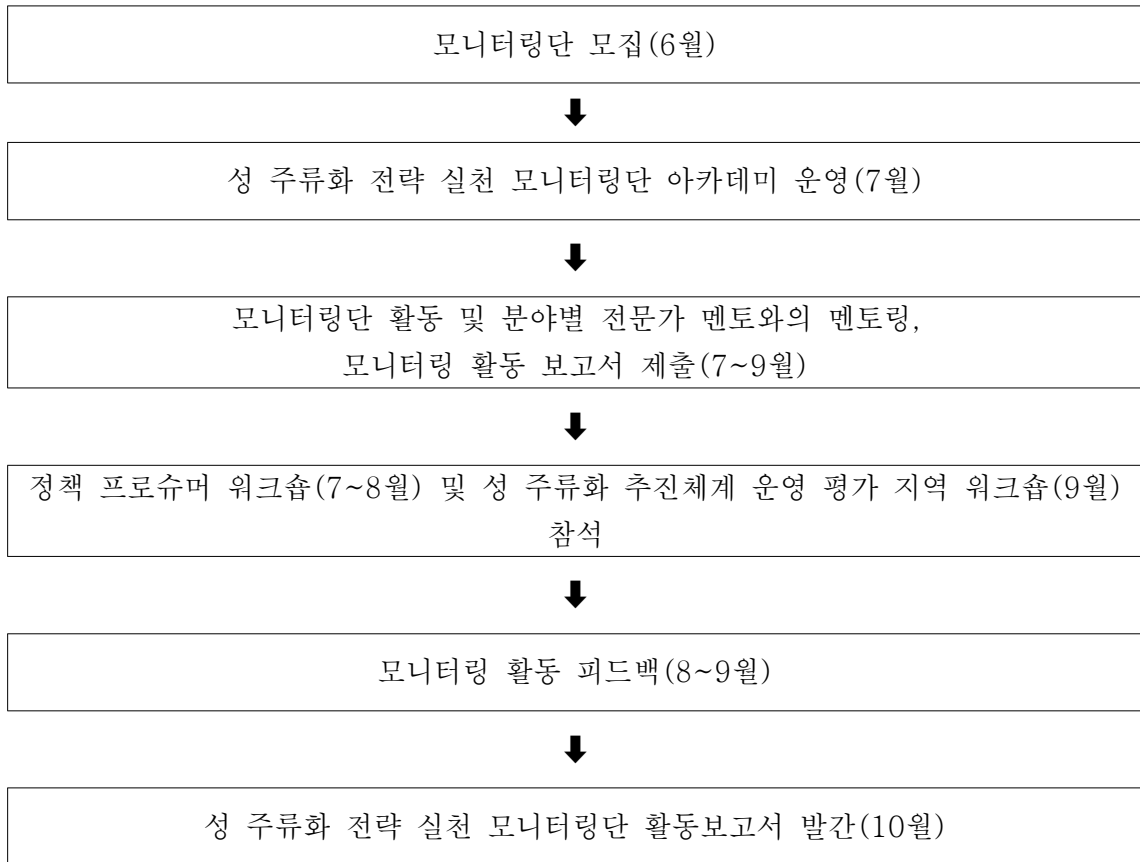
구성 및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모집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및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 활용 ■ 대전지역 젠더 NGO 대상 홍보 공문 발송 ■ 대전지역 정책 NGO 대상 홍보 공문 발송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대상 홍보 이메일 발송 ■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자 대상 홍보 이메일 발송
모집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거주, 대졸이상, 대전시 정책 및 성주류화 확산 전략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 혹은 남성 00명

선정과정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응시자 총 34명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및 과제 연구자 회의를 통한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 경험자 우선 선발 ■ 연령대 및 다양한 시민사회활동 경험 고려 ■ 선발 인원 총 16명 ■ 대전여성단체연합 소속 활동가 3명,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활동가 1명, 대전YWCA 소속 활동가 5명,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2명, 사회과학계열 연구자 1명,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소속 활동가 2명, 문화관련 학과 대학생 2명
정책 전문가 멘토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사업을 비롯한 바우처사업과 정책 이슈 관련 멘토링 ■ 성주류화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정책제안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컨설팅 제공

[표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구성 및 분야 배치

정책분야	모니터링단	정책 멘토
문화바우처	젠더 NGO 1인, 지역 NGO 1인	김학실 (충북대학교)
	대학생 1인, 사회복지연구자 1인	
	대학생 1인, 대전YWCA 1인	
여성안전	젠더 NGO 1인, 주부생활공감 모니터단 1인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대전YWCA 2인	
도시공간·환경	대전YWCA 1인, 지역 NGO 1인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 NGO 2인,	
	대전YWCA 1인, 주부생활공감 모니터단 1인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운영 과정



4.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적용 지표

- 모니터링단은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 전에 멘토와의 워크숍을 통하여 모니터링의 방향과 활동 방식 등을 논의하였으며, 점검 지표를 정비하여 모니터링이 보다 구체적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활용 지표는,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운영 당시, 완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모니터링단과 멘토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것이 사실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과정과 멘토링을 통하여 성인지적인 정책 사업 현장 모니터링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
- 모니터링단은 문화마우처 중 기획마우처사업이 실행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 현장을 참여 관찰하고 수혜자 및 자원봉사자(수혜 집단 인솔자), 그리고 사업 집행 실무자

들을 만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모니터링단이 현장 참여 관찰과 인터뷰 전 준비한 측정 지표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함.

- 성인지적 관점으로 문화바우처사업, 여성안전분야, 도시공간·환경분야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지표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니터링원에겐 큰 부담이었음.
- 도시공간 및 환경에 대한 여성친화성을 점검하는 지표로 서울시의 <2010 서울시 여행 시설 시민평가단 모니터링>사례를 참고하였음.

제2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운영

-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바우처사업, 여성안전분야, 도시공간·환경분야를 대상으로 일련의 정책실행 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제공
- 교육 일시 : 2012년 7월 9일(월) ~ 2012년 7월 10일(화)
- 대상인원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16명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내용
1일차	I. 성 주류화와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	· 성차이와 성차별의 이해 · 젠더 감수성 키우기
	II.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	· 문화 바우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수행과정 등
	III. 여성친화도시란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사례 공유 ·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실천전략 이해
	IV. 모니터링이란 I	· 모니터링단 활동이란 · 모니터링단 과정에 관한 이해
2일차	V. 모니터링이란 II	· 여성친화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제 및 사례
	VI.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작성법	·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작성법 설명
	VII. 모니터링단 활동 구성 및 위촉식	· 관심 이슈 분야 선정 및 이슈별 팀 구성 · 분야별 전문가 멘토와 연결 · 모니터링단 위촉식

- 모니터링단에 지원한 참가자 16인 성인지 관점 및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하여 전혀 들 어본 바 없는 대학생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다년간 수행해 온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됨. 따라서, 교육의 수준을 성인지 관점 및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세미나와 교육 과정에 1회 이상 참여해 본 중간층에 맞추어 진행하였음.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멘토단 운영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분야별 멘토 연결
- 멘토링단의 역할
 - 바우처사업과 정책 이슈 관련 멘토링
 - 성 주류화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시 집단 멘토링 실시
- 멘토와 멘티의 멘토링 방법
 - 3개 팀으로 나눔(문화바우처 1팀, 여성안전 1팀, 도시공간·환경 1팀)
 - 7월 중 각 분야별로 정책프로슈머 워크숍 개최(각 팀당 1회)
 - 모니터링 활동보고서에 대한 컨설팅 형식으로 멘토링 수시 지원

3.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운영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개요

멘토	소속	참여일자	장소	대상
김학실	충북대학교	19일(목) 오후 1:30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문화바우처 모니터링단 6명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19일(목) 오후 3:00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여성안전분야 모니터링단 4명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일(목) 오후 1:30	대전발전연구원 3층 대회의실	도시공간·환경분야 모니터링단 6명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문화바우처사업 논의 내용

① 수혜자/인솔자와의 인터뷰 지표(안)

- 1) 문화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2) 문화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2)-1. 어려웠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정보의 접근성, 시간상의 문제 등)
- 3) 문화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예) 교통편, 돌봄가족의 문제(자녀, 노인, 장애가족 등), 식사, 시간, 인솔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등

- 4) 문화바우처 사업을 몇 번 이용하셨습니까?(1년단위)
- 4)-1. 주로 이용한 프로그램은?
- 4)-2.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 5)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예) 프로그램, 시설, 제도(5만원 지급)
- 5)-1. 문화바우처를 또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 5)-2. 이용하고 싶다면 왜, 그렇지 않다면 왜?
- 6)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본인이 문화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6)-1.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이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
- 7) 문화바우처 사업이 여성을 위해 혹은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1. 그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길 바라는 사항은?

② 문화 콘텐츠 생산자와의 인터뷰 지표

- 1) 문화바우처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 2)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환경/인프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3) 지역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향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4) 문화바우처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③ 사진

프로그램명	단체명

※인물사진 배제. 초상권 등 주의

④ 향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준비/필요 사항

- 1) 인솔자, 봉사자 그리고 문화 생산자들에 대한 인터뷰(정성적 접근 필요)
- 2) 기획바우처 사업 리스트의 확인과 현장 방문 일정 조율
- 3) 정책제안: “1+1 바우처” - 사업 대상자들의 혜택 수혜 시 개인에 대한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인(가족이나 친구 등)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함(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효과의 방지).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여성안전분야 논의 내용

① 목적

- 1) 한국사회의 성별화 된 젠더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위험 인식과 여성 안전에 관한 이슈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2)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요소로서 먹거리 문제, 여성의 사회활동의 많아짐에 따라 등장하게 된 도시 공간의 안전문제, 여성 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등의 여성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도출함

② 배움터 지킴이가 있는 학교 어린이(사업 수혜자)와의 인터뷰 질문내용(안)

- 1) 지킴이 할아버지는 매일 정해진 시간, 장소에 계시나요?
 - 2) 지킴이 할아버지가 있어서 학교 앞이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나요?
 - 3) 지킴이 할아버지가 있어 좋은 점/싫은 점은 무엇인가요?
- ※지킴이가 있는 학교 교사, 학교 주변 상인 및 지킴이를 인터뷰 할 수 있음.

③ 향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준비/필요 사항

- 1)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사업은 사업 설명서 제시되어야함.
- 2) 도시 환경 영역과 유사한 지표-특히, 안전 관련하여-를 활용할 수 있음.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도시공간·환경분야 논의 내용

① 목적

- 1) 이용자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대전시 도시환경(공간 및 시설, 환경)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도출함
- 2)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대전시 도시환경에 대한 체감도 및 수요도,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하는 활동임
- 3)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생활권적 접근으로 공간과 환경 속에서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조치의 관점을 도입하는 시도임

② 모니터링 지표 및 활동 포인트

구분	주요 관찰점	비고
이용자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요구도(수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이용자의 의견청취 고려 * 연령대별
공간 및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 편의성 ● 쾌적성 ●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시설 	
성인지 특성 (감수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성별, 연령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 고려 가능

※ [20101 서울시 여행시설 시민평가단 모니터링 지표] 참고

③ 추진방법

- 본 현장방문평가 이전에 현장시물레이션 실시(논의)

④ 향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준비/필요 사항

- 1) 타 기관의 사례 제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의 점검 가이드라인 활용
- 2) 해당 공간 및 시설에 대한 법/조례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키워드

를 입력하면 쉽게 취득 가능함.

4.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워크숍 운영

-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바우처사업, 여성안전, 도시공간 및 환경 정책을 대상으로 일련의 정책실행 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활동결과 점검
- 일시 : 2012년 8월 27일(월) 10시 30분 ~ 12시 30분
-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인원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및 정책멘토 등 20여명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워크숍 주요 토론 논의 정리

1 발표

1) 발표자1

- ①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모니터링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 ② 창리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니터링
 - 날씨로 인해(더위) 이용자가 별로 없었음
 - 창리어린이공원과 함께 주변 다섯 개의 어린이 공원을 함께 모니터링 함 : 모든 공원들이 녹지시설과 어린이 공원이 조화를 못 이룸
 - 입구에 나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교수님께 자문(모른다는 답변), 이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였음, 법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움
 - 화장실이 전혀 쾌적하지 않음, 장애인 화장실인데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려움(여단이문),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함(형식적임)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으나 실효성이 없어 보였음.
 - 여자 화장실 문을 열면 동선이 모두 파악 되서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
 - 어린이 공원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음, 이용자의 요구하는 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 과연 어떻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적,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

- 관련 위원회나 자문 활동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듦. 여성의 참여를 통한 여성친화적인 공원의 필요성이 요구됨.

2) 발표자2

① 공원 개보수 사업 모니터링(롯데백화점 뒤의 어린이 공원 탐방)

- 말은 거창한 현대사업이라 하면서 공원 업그레이드 하였는데, 공원 보수에 대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의문이 듦. 일정한 법령에 맞춘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나 예산에 맞춰 주먹구구식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됨.
- 화장실 속이 역시나 다 보이고 너무 비좁음,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공간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급할 때 동네 아이들이 간간히 이용하는 정도임.
- 공원에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줄 공간이 허용되지 않았음.
- 나무를 심은 후, 그 이후의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하고, 벌레 등으로 비위생적임.
- 남녀 차이, 연령 차이 고려하지 않은 공원으로 유아전용놀이기구만 설비,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기구가 없음.
-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안목이 생김.
- 공무원들이 성인지적인 인식을 가져 실생활에 적합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함.

※ 1), 2) 성별영향평가된 사업 모니터링

3) 발표자3

① 골목길 재생사업

- 대흥동 일대(대전여중~홍명프리존)를 모니터링 함
- 은행동 일대는 가족,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은 골목길, 보도블럭, 편안한 보행이 어려움이 있음. 환한 조명이 없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임. 낮에 방문해도 불결하고 상업 지역(모텔, 음식점)이 있어 답답해 보임
- 대흥동 일대에 대흥공원이 자리잡고 있음. 화장실은 거의 파손되었고, 표지판도 없음, 대단히 비위생적(용변을 해결하기 어려움)이며, 물도 안 나오고 형광등도 파손됨. 사용하지 않은 미끄럼틀·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바닥·이용하지 않은 무대·불필요한 구조물 등이 많음. 이용자에게 외면받는 곳임. 인터뷰한 지역주민은

밤에 이 지역이 매우 위험한 장소로서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밤에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장소라고 함.

- 공원의 상태에 대해 중구청에 문의 :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음. 공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 민원제기가 아니라 건의를 하면서 공원 자체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의 하였으나 현행 법제도상 전혀 안된다고 함
- 전체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거리를 오가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4) 발표자4

① 대전 중구 중촌 주공아파트(2단지) ‘한여름밤의 꿈’ 기획바우처 참여

- 발마사지 체험, 네일아트, 풍선공예 등의 부스, 공연, 영화관람, 음악회 등 진행 됨.
- 영화관람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함.
- 이 행사의 참여자 : 자원봉사자(남여혼성), 지역주민(남녀노소 - 여 350, 남 150명이며, 지역주민 남녀거주 비율 7:3)이 참여하였으나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됨.
- 여성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룸, 남성분들은 참여가 미흡하며, 어려움. 남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적음.
- 72세 남성의 인터뷰 : 노인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장소가 없음. 남자 혼자 참여하여 마음의 어려움을 느낌, 남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음, 남성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촌동 지역의 특성 :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음, 남성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여성가장 인터뷰 중 홍보부분 : 지인을 통해 문화바우처 소개되어 참여함. 본인은 생계로 바쁘지만 청소년 딸이 매우 알차게 활용하고 있음(교재 및 도서 구입, 영화관람 등).
- 실무자 인터뷰 : 매우 알차게 활용하고 있음(교재 및 도서 구입, 영화관람 등). 대상자들이 1회성 행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함, 사업의 지속성이 없다는 불만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 함.
-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업 진행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었음.

5) 발표자5

① 8월 2일 진행된 기획바우처 참여

② 인터뷰 : 문화재단 담당자, 문화단체 관련 NGO 활동가

- 문화재단 담당자 인터뷰 : 종합적 연계시스템의 부재, 어려움 등을 이야기함. 성인 지관점에 대한 접근(성별통계, 성별만족도 등)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서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낌.
- NGO 활동가(문화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 복지의 개념(시혜적 개념)으로서의 문화를 나누어주는 개념일 수 있음.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적 접근이지만, 다양한 계층에게 접근해야 함.
- 문화바우처 5년간의 수행 기관 점검이 필요. 젠더과점의 추가가 필요함.
- 행정적인 용어로 대상이 홍보나 홈페이지 등에 나타남. 대체 용어나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뀌야 함.
- 문화는 비주류 범주, 저소득층은 비주류 임. 국가 행정에서 자활이나 수급업무에 비해 매우 비주류임. 협조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성향(자존감, 자신감에 대한 고려), 과연 이벤트성 사업이 수혜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화적 소외계층을 더 찾아서 발굴해야 함(육아중인 여성들). 현재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 요일에 프로그램이 편성됨. 기획자의 입장에서 사업 수행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임.
- 심층적인 접근,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접근으로서는 문화적 소외계층으로서 돌봄 여성을 위한 여건이 필요함. 공간적인 접근으로서, 농촌, 외곽지역, 여성노인, 다문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획일적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접근이 필요함.

② 전체 논의

1) 문화바우처 분야 활동가1 : 문화카드 사용자 인터뷰

- 복지적인 차원으로 접근임. 문화적 요인이 많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듦.
- 문화프로그램의 질이 더 높은 공연 등을 시행했으면 함.

- 한부모여성가장 의견 : 학령기 자녀들이 많아 주로 참고서적, 아이들 영화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함. 본인의 문화보다는 복지차원으로 도움이 되며, 문화보다는 복지쪽에 의미를 두는 것 같음. 지인을 통해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대부분이며, 주민센터 등의 안내 및 정보의 공유·홍보가 미흡함. 홍보포스터나 신청서 등에서 표시된 관련 용어(예,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으로 이해하기가 힘들.

③ 정책 멘토 의견

1) 안수영 멘토(도시공간·환경)

- ① 실제로 시설 탐방을 통해 성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짚어 주셨음
- ② 여성친화 개념 중 ‘장애가 없는’ 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개념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임.
- ③ 법제, 매뉴얼 등에 대해 어떻게 향후 발전시킬 것인지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됨

2) 박노동 멘토(여성안전)

- ①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에서 사후적 평가가 아닌 사전적 평가로, 본인이 평가해서 본인이 고치는 것보다 시민사회영역, 주민자치분야 등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 실제 현장의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공간 분야 등이 잘 나오지 않았음.
- ② 정책에 대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건의, 토론, 제안 활동 등은 도시의 자생력, 즉 가치활동이라고 봄.
- ③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유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의제21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제안 활동도 해주셨으면 함.
- ④ 문화격차 해소, 소득간 격차 해소 등의 부분에서 볼 때, 행정편의주의적인 상황임. 전반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적극적으로 요구됨.

3) 김학실 멘토(문화바우처)

- ①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신 점이 매우 도움이 됨.
- ② 모니터링 결과
 - ① 전체적으로 사업은 법률과 연동되어서 움직여야 함.
 - ② 바우처 대상 발굴에 있어 기관간 연계의 필요성 있음
 - ③ 문화바우처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용어상의 문제와 대상자 확대에 관한 문제

제기

- ④ 문화바우처의 경우 복지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향수와 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제기되었음

③ 모니터링 상의 문제

- ① 문화바우처의 경우 한시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다 보니 다양한 수혜자에 대한 인터뷰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기 어려움
- ② 다양한 바우처 사업의 모니터링이 필요함(기획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도 찾아가는 사업, 공연, 전시 등)
- ③ 프로그램, 공간, 참여자, 홍보, 시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세세하게 이루어질 필요 있음

④ 기타의견

- 1) 저도 이용자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함. 공원은 녹지공간이지만, 나무, 가로등, 보도블럭 등 마다 관리하는 기관이나 실국이 다름. 500미터 안에 거주하는 500명의 건의가 있어야지 바뀔 수 있다고 함. 이를 변화 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했으면 함.
- 2) 안전, 우범지대 해결에서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협력을 통한 안전이 필요함.
- 3) 배움터 지킴이(중고등, 교육청) 평가
 - 꿈나무(초등, 시), 또래지킴이(시와 해병대전우회-해병대 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침) 등이 있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음.
 - 지킴이는 군대제대출신·50대 초반의 남성이 많으며, 학생들에게 명령조의 의사소통을 많이 함.
 - 지킴이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필요함(년1회에서 분기별 1회). 인적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킴이 조건이 전직교사 및 전직 제대군인이 유리하며 퇴역군인이 대부분임. 지킴이가 되고자 할 때, 여성의 접근이 어려움이 있음.

● 분야별 활동 보고서 제출 건수

문화바우처사업	여성안전분야	도시공간·환경	합계(건)
7	3	9	19

제 2 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1절 문화마우처사업

제2절 여성안전분야

제3절 도시공간·환경분야

제 2 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1절 문화바우처사업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대전 문화바우처 모니터링
제안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월 9일
제안자	김 래 희

1 현황

· 현장 모니터링 일시: 2012년 8월 2일/ 오전 10시~오후4시

- 이용현황 : 대전 문화바우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 中 ‘문화 발도장 찍기’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오는 경우는 드물었음. 초등생 어린이들이 많았고 인솔자가 적어 문화바우처에 직접 자원해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3명 계셨고 대전문화재단의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모든 일들을 맡아 함.

- 이용자 만족도 : ‘문화 발도장 찍기’ 프로그램 일정에는 문화예술, 연극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튜릭아트’ 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여자 어린이들이 소극적인 태도가 많이 보였음. 남자 어린이들은 보도 블록에 그려져 있는 ‘튜릭아트’ 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사진 촬영에도 참여함.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다 함께 임해야 하는데 하는 어린이들과 안 하는 어린이들이 눈에 띄게 보임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느꼈음.

- 프로그램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도자기 체험’은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제일 높았음.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게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으며 아이들은 직접 석고판을 놓고 준비되어 있는 흙으로 만듦으로서 즐거워했음. 또한, 자신이 만든 도자기 목걸이를 2주 뒤에 받을 수 있게 해주므로 만족도는 더 높았음.

② 문제점

-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미비 : ‘문화 발도장 찍기’ 프로그램의 취지는 원도심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취지에 비해 미약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었음. 프로그램 이름은 발도장 찍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발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체험할 공간은 극히 적었음. 사진촬영, 갤러리 탐방, 연극 관람 같은 경우 아이들은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었음.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았음.
- ‘튜릭아트’ 경우 공간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었음. ‘갤러리 탐방’ 같은 경우에도 초등생 어린이들에게 정말 탐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임. 산호 여인숙이라는 곳을 탐방했을 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탐방은 커녕 안에서 뛰어놀기 바빴음.
- 한, 이용자가 재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태임. 어린이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생각보다 재미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임. 단지 도자기 체험한 경우에만 흥미를 가졌고 외의 프로그램들은 지루해함.

③ 개선방안

- 개인적으로 자원해서 오는 이용자들보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봐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늘리거나 문화바우처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선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문화바우처 이용자들이 함께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사람들이 정말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와 닿을 수 있도록 하여 할인제도나 문화바우처 1+1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프로그램을 하며 이동시 사전에 인솔자와 담당자들은 아이들이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잘 맞춰 따라올 수 있도록 ‘문화 발도장 찍기’ 안내판을 세워둘 수 있도록 해야겠음. 또한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더 확보하여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더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4 기대효과

- 홍보영상과 할인제도를 더 늘려 문화바우처 이용자들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문화바우처 홍보효과도 될 것이고 프로그램 다양화로 재이용률이 높아질 것이임. 또한 안내판을 세워둠으로써 아이들이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음.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문화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홍보방안 (문화카드)
제안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환경
제안일	2012년 08 월 09 일
제안자	안 명 희

1 현황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2 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카드 사업
 - 기획바우처 사업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대상자
 - 복지시설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미 신고 시설 제외)
 - 기타 문화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전체 수혜인원의 40%이내)
- 주최 :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재) 대전문화재단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예산 : 2012년

(단위:백만원)

국고70%	지방비30%	총예산
1,057	440	1,497

2. 문화카드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2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사업

- 카드발급대상 및 발급매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한부모 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등)
 - 복지시설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대상자 중 만10세~19세 청소년
 - 개인당 5만원권 1매 / 가구당 최대 7매
- 주최 :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재) 대전문화재단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예산 : 1,057,000천원(국비100%)
- 현재 대전시는 카드발급실적 6위/ 연이용실적은 낮은 편이다.

3. 모니터링 활동보고 (질문 형식에 의한 인터뷰)

사업유형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대상	※문화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중 어머니 · 시민단체의 한부모 여성가장 자조모임을 통하여 사업의 실질 이용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한부모 가족의 경우 청소년 자녀의 문화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하여 부모(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		
일시	2012년7월24일	장소	대전여민회 강당
성별	여자	연령/인원	30~40대 / 7명

① 수혜자와의 인터뷰 내용

1) 문화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기존에 문화바우처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지인이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 자녀가 친구로부터 정보를 알고 알려주어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었다.

- 2) 문화바우처 사업 (카드발급등)을 신청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정보의 접근성)
- 주민센터의 신청과정은 어렵지 않다.
 - 사업 자체에 대한 정보(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항목등)는 사용해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사업시행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지는 못했다.
 - 기존 경험(전년도 이용)이 있는 경우 갱신 신청시 바뀌는 제도(카드 발급 매수의 확대)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지 않았고, 문의나 사용 경험 중에 재문의했을 때 알려 주었다.
- 3) 문화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이용시설 , 이용할수 있는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 이용경험을 통하여 가능
 (예) 할인이 되는 영화관, 구입할 수 있는 서적이거나, 서점등)
- 4) 문화카드로 주로 이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서적 : 자녀가 학령기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참고서적
 - 영화 : 자녀와 함께 자녀 수준의 영화
- 5)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가?
- 주로 자녀위주의 교육적 서적 구입과 자녀수준의 영화를 선택하다보니, 본인을 위한 영화나 공연은 참여가 어렵다, 본인을 위한 영화나 공연을 보고 싶다.
- 6)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인가?
- 제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 사업 정보제공: 사업정보 제공이 공적 경로(주민센터및 방송 기타)가 아닌 사적경로(이용경험이 있는 지인)이다보니, 정보에 대하여 한정적이다.
 - 금액(5만원) : 학령기의 부모의 경우 이용 항목이 참고서적 및 자녀위주로 사용을 하다보니 금액면에 부족하고, 정작 본인을 위한 영화나 공연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
- 7) 문화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싶은가?
-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재발급 받고 싶다.

- 8)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본인이 문화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도움은 되고 있으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 9)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문화카드 금액(오만원)이 적다보니 질 높은 공연의 경우는 1회 이용만으로 금액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게 되고, 주로 자녀를 위한 서적구입(교과과목에 필요한)이나 자녀와 함께 보는 교육용 영화(연1~2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문화생활이라고 느끼기에는 거리가 있다. 기왕에 자녀와 이용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연극 등을 볼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나 금액에서 제한이 있다.
- 10) 문화바우처 사업이 여성을 위해 혹은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다.
 · 문화의 범위를 넓혀 여행을 위한(여행 바우처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선정되기가 너무 어렵다) 철도할인, 숙박이용 등에도 활용되었으면 한다.
 · 현재 바우처 카드는 한번 이용시 본인 1회에 한한다. 자녀들이 영화관람을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데, 바우처 카드가 없는 친구는 자비를 내고 본인은 카드를 내는 상황이 좀 애매할 때가 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가 있는 친구끼리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구의 영화관람 비용을 대신 내주고 싶은 때도 있다. 한번 이용시 여러장의 영화티켓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영화 정도라서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다.

② 문제점

● 홍보의 문제

- 문화카드 대상자의 경우 주로 청소년의 부모에 의해 신청되며, 한번 이용하면 다음해에도 신청하게 되므로 처음신청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처음 신청시 신청을 받고 있는 주민센터나, 사업의 시행주최인 문화재단의 홍보에 의한 것이 아닌, 지인들에 의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음.

- 이용에 관한 문제

- 학령기 청소년의 문화카드 이용은 주로 학업과 관련된 참고서적이거나 영화 정도에 국한되어 있음. 문화카드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문화혜택(문화복지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복지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본래취지가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볼때 문화가 빠진 복지의 부수적 혜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질 높은 공연이나 전시의 경우 카드 지원금(5만원)을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문화카드로 영화, 공연관람시 문화카드를 가지고 있는 1인1회1티켓을 이용하다보니 문화카드 대상자끼리만 이용하게 되고 미소지자와 동행하는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또 다른 낙인으로 작용하게 됨.

3] 개선방안

- 홍보

- 문화카드의 사업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관련 증명을 신청하게 됨(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대상자, 보장시설수급자 등). 관련 증명 신청시 해당 공무원의 문화카드에 대한 안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수혜 대상자가 밀집 이용하고 있는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에 사업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 이용에 관한 문제

- 지원금에 대한 인상이 요구되거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공연, 전시 등 고가의 이용물의 경우 카드 소지자에 대한 할인폭이나 할인되는 공연물을 늘림으로써 이용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연이나 영화티켓의 장수에 대한 자율의 폭을 확대하여 카드 미소지자와 함께 이용하거나. 기획행사(예 친구에게 선물하기)등을 통하여 문화를 공유함.
- 이벤트성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문화 생활에 직접 참여를 유도함.(예로 엄마와 함께 영화감상 혹은 공연 감상, 함께 읽은 책 독후감 등 후기쓰기 응모, 당첨되면 도서상품권증정 등)
- 문화카드 소지자가 기획bauer사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혜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4 관련사진



주로 이용하는 서점과 구입하는 서적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문화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홍보방안 (기획바우처)
제안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08 월 16 일
제안자	안 명 희

① 현황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2 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카드 사업
 - 기획바우처 사업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대상자
 - 복지시설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미 신고 시설 제외)
 - 기타 문화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전체 수혜인원의 40%이내)
- 주최 :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재) 대전문화재단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예산 : 2012년

(단위:백만원)

국고70%	지방비30%	총예산
1,057	440	1,497

2. 2012 기획바우처 사업 <모셔오는 서비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공연장(전시장)으로 초청하여 문화에

술 작품 관람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바우처 사업 대상자 중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
-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 보호자 문제 등으로 문화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문화 복지 소외계층 및 관련 지원, 보조 인력

3. 모니터링 활동보고 (질문 형식에 의한 인터뷰)

사업유형	기획바우처 문화행동 프로젝트 모셔오는 서비스 “한여름 밤의 꿈”		
인터뷰 대상	· 00 영구임대 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 문화바우처 담당 사회복지사 · 시행기관(대전문화재단) 사업기획 담당자		
일시	2012년 8월 14일	장소	대전시 중구 00영구임대아파트내 광장
행사개요	· 대전시 중구 00영구임대 아파트를 찾아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공연행사(국악공연, 야외 영화관람) · 당일 행사의 경우 아파트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지역민에 대한 행사홍보를 하였으며,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행사 식전 활동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행사진행 안내 및 간식을 제공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참여 단체 각자의 재능 기부에 따라 발맞사지, 수지침, 네일아트, 한방차 시음 등의 부스를 운영하였음.		

Ⅰ 대전 문화재단의 문화바우처(기획바우처) 담당자 인터뷰(남성/30대)

- 1) 당일의 기획바우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전 전화 인터뷰 : 사전 현수막이나, 전단지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홍보는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당일날 아파트 단지내의 현수막이나 안내지가 나갈 예정이다.
- 2) 오늘 행사의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 오늘은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 단체에서 부스운영, 행사안내도우미, 식전국악공연 등을 하고 있

으며, 문화재단에서는 영화관람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내의 복지관에서는 지역민에 대한 안내방송과 장소섭외를 했다.

3) 오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내의 연령이나 성별을 파악하고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가?

- 연령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내 복지관 담당자를 통하여 노인 인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국악공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순서로 들어갔으며, 재능기부를 통한 부스운영도 한방의료기체험, 수지침, 등이 들어왔음. 성별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4) 오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어려운 점은?

- 야외 행사다 보니 날씨와 장소가 제일 문제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다보니, 서로의 역할과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

② 문화바우처 담당 사회복지사 인터뷰 내용 (30대/남)

1) 지역민에 대한 이번 기획 바우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가?

- 영구임대 아파트내의 행사 안내방송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화안내 등으로 홍보한다.

2) 사업 진행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기획바우처 사업은 매년 1회 정도는 하는 행사이고, 복지관의 경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지역민 대상의 홍보와 장소섭외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다보니, 날씨에 대한 변수도 있고, 기획바우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감이 있어서 당황하게 되었다.

3) 기획바우처 행사의 경우 지역민의 호응도나 반응은 어느 정도인가?

- 오늘 참여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지역민의 흥미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 아마도 함께 운영되는 부스에 대한 호감과, 간식제공 등이 호응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 것 같다.

4) 지역복지관의 문화바우처 사업 이용자의 연령대나 성별은 어떤가?

- 이곳 영구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주로 60~70대의 노인 인구가 많다. 복지관의 문화프로그램 (노인 합창단, 한글교실 등)등을 보면, 성별에서는 여성노인이 70%정도이고, 남성노인이 30% 정도이다. 문화바우처 또한 여성노인의 참가가 많다.
- 5) 프로그램 참여에서 성별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여성노인의 여가생활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남성 노인의 경우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노인 참여가 많아지고, 남성노인의 경우 지역에서 여가를 보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남자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 아파트 내의 프로그램보다 지역을 벗어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내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남성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가 높은 여성노인 속에서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 6) 기획바우처 행사의 경우 지역민이 문화바우처의 일환인 것을 알고 있는가?
- 기획바우처 행사는 일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으며, 비슷한 행사(노인잔치, 경로 행사)는 구청이나 인근유관단체에서도 하고 있다. 지역민 또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며, 별도로 문화 활동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
- 7) 기획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행사 주최측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기획바우처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민에게 문화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과는 달리 노인인구의 경우 문화 카드의 발급이 어렵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영화나 기타 공연의 경험은 더욱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기획바우처 사업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런데 몇 번의 행사 경험을 통해서 보면, 매년 비슷한 내용의 행사(국악공연, 야외영화관람)는 다른 행사와 크게 차별화 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지역민에게 문화 행사로 다가가기 보다는 시혜차원의 경로잔치 수준으로 느껴진다. 프로그램의 질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문제점

● 행사주최기관의 혼재

- 당일 행사의 경우 문화바우처 사업의 기획바우처 문화행동 프로젝트 모셔오는 서비스 “한여름 밤의 꿈” 으로 기획되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어진 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됨. 그러나 행사진행과정에서 행사안내, 부스운영, 간식제공 등 행사전반이 자원봉사센터의 진행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영화관람 준비정도만 담당하고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원래의 기획 총괄 책임이 어느 기관인지 모호함. 자원봉사센터의 주관행사에 문화바우처가 약간의 역할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기획바우처 본래의 기획 취지와 거리가 있음.

● 프로그램의 내용

- 프로그램의 내용이 식전 국악 한마당, 야외영화관람의 순서로 진행되었음.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악 한마당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이용자 뿐만 아니라 중 장년층의 이용자도 많았으며, 공공기관이나 지역유관기관의 경로잔치처럼 진행되어 문화 행사에 대한 차별성이 없었음.

③ 개선방안

● 기획바우처 시행기관에 의한 총괄책임과 역할분담

- 기획바우처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의 기획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됨. 좀더 세밀한 기획을 통하여 기획에서 총괄까지 시행기관이 주도하고 의도한 대로 역할이 분담되어 질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역할의 분담을 조율하고 한계를 정하여 행사가 진행되어 질때 문화바우처 본래의 취지가 살아 날 수 있다고 봄.

● 기획바우처 프로그램의 개발

- 문화바우처 사업의 기획바우처 문화행동 프로젝트 모셔오는 서비스 “한여름 밤의 꿈” 은 문화적 경험이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당일의 프로그램은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경로 잔치성 프로그램으로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으며,

이용자가 문화적 경험에 대하여 인식하기에는 부족함. 차별화되고, 문화라는 테마를 느낄 수 있는 좀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되어 졌으면 함.

● 사전 욕구 파악에 의한 기획

- 지역내의 이용자에 대한 연령, 성별을 파악하고 욕구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여 좀 더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질 필요가 있음.

4 관련사진



기획바우처 안내현수막



체험부스



체험부스



체험부스



체험부스



영화스크린



국악공연



섹스폰연주



영화관람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꿈
제안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08 월 27 일
제안자	윤 지 용

1. 현황

1.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프로그램명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꿈
- 사업유형 : 기획바우처
- 참여대상 : 수혜자, 문화공급자, 인솔자(자원봉사자)
 - 여성 350명, 남성 150명이며, 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
- 모니터링 일시 : 2012.8.14.오후 6시 ~ 8시
- 모니터링 장소 : 중촌주공아파트2단지

2.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참여자 ① 황-㉠(81세, 여) ② 최-㉡(72세, 남, 문화카드 사용 경험 있음) ③ 신-㉢(41세, 여) (새터민, 모녀가정, 13세 자녀1명, 문화카드사용중) ④ 장-㉣(복지관 실무자, 남) ⑤ 정-㉤(기획바우처 담당자, 남) <p>1. 수혜자/인솔자와의 인터뷰 질문내용</p> <p>1) 문화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p>
--

- ㉔ 아파트 관리실에서 스피커로 방송으로 알게 되었다.
- ㉕ 오늘 공연은 아파트 방송으로 알고, 카드는 복지관을 통해 알게 되어 신청하였다.
- ㉖ 아는 언니 통해서 작년에 알게 되었다. 금년부터 카드 사용한다.

2) 문화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나?

- ㉔ 그냥 방송 나오면 슬슬 걸어 나오니까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다.
- ㉕ 카드신청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다.
- ㉖ 신청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라도 사용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① 어려웠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는가?(정보의 접근성, 시간상의 문제 등)

- ㉕ 새터민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왔다고 하고 살고 있다. 그러서 정보에 더욱 어두운 편이다.

3) 문화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㉔ 나이 먹고 몸 불편하니 멀리서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누가 데려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 ㉕ 여자가 너무 많고 남자는 없어 좋은 것을 해도 혼자 멧쩍어서 못 다니겠다. 대덕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어 버스타고 다닌 적 있었는데 멀미를 해서 더 이상 못 다녔다.
- ㉖ 난 혼자 살면서 딸을 키우느라 사실은 문화카드가 있지만 아직 사용해보지 못하였다. 치킨집 운영 하는데 문 닫고 따로 나가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생각은 못 하고 살고 있다. 오늘처럼 동네에서 이런 행사 있으면 참석하고 있다.

예) 교통편, 돌봄가족의 문제(자녀, 노인, 장애가족 등), 식사, 시간, 인솔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등

4) 문화바우처 사업을 몇 번 이용하셨습니까?(1년 단위)

- 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네 번 정도 오는 것 같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아프지만 않으면, 꼭 참석한다.
- ㉕ 여기서 하는 것은(기획바우처) 거의 참석하고, 카드는 작년에는 참석했

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

- ㉔ 난 아직 사용 못 했지만, 딸은 어제 무주리조트에서 하는 무슨 캠프도 다녀오고 문구류도 사고 책도 사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해주니 아주 좋아한다.

4)-① 주로 이용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㉔ 혈압도 재고, 발 맛사지도 받고, 영화도 본다.
- ㉔ 여러 가지 했는데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육 하는 것 좋았다.

4)-②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가?

- ㉔ 애기들 나와서 재롱떠는 것 보고 있으면 이쁘고 좋다.
- ㉔ 노래교실이 제일 좋았는데 남자 없어서 못 다니고 있다.
- ㉔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도 사용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5)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가?

- ㉔ 그냥 와서 해주니까 고맙다.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 ㉔ 아직은 그것만도 고맙게 생각한다. 카드는 딸아이가 거의 다 썼는데 그야 쓰기 나름 아닌가?

예) 프로그램, 시설, 제도(5만원 지급)

5)-① 문화바우처를 또 이용하고 싶은가?

- ㉔ 이용함.
- ㉔ 당연히 이용함.

5)-② 이용하고 싶다면 왜, 그렇지 않다면 왜?

- ㉔ 사람 구경도 하고 재미있다.
- ㉔ 여기 와서 해주는 거는 그냥 오면 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석하지만, 따로 할머니 할아버지만 참여하는 곳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6)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 본인이 문화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㉔ 그냥 이런 게 문화라고 생각한다.

6)-①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㉔ 먹고 살기 힘들어 문화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한국살이가 생각보다 팍팍해 잠시도 여유롭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문화라고 하면 문화라고 생각한다.

7) 문화바우처 사업이 여성을 위해 혹은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㉔ 눈 올 때는 공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복지관에서 하기도 한다. 오늘도 비 올까 걱정 했었다.

㉔ 여기는 여인천하이다. 남자들이 기를 못 펴고 있다.

7)-① 그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길 바라는 사항은?

㉔ 자주 와서 해 주면 더 좋겠다.

㉔ 천지가 할머니들만 있으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천변가에 기웃거리러 비오면 집안에 틀어박혀 막걸리나 먹고 그러고 있다.

㉔ 혹시 수급이 끊어지면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다고 정말 살 살게 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나마 못 받게 되면 아쉬울 것 같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고맙다고 생각한다.

㉒ 복지관실무자 및 바우처사업 실무자 인터뷰

1) 사업을 기획 하거나 진행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중복지원이 안되는 사업의 특성과 지속성을 요구 하시는 대상자분들께 일회성 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움이 있다(대상자분들은 도와주려면 계속 도와 줘야지 이걸 아니다라고 요구함).

· 한정된 자원으로 고루 나누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3) 정책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 어르신들 문화카드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좀 더 간소화 하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 서비스의 횟수가 더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

● 모니터링 사진



발 마사지 체험



발 마사지 체험



혈압측정



한방차 무료시음



네일아트



풍선공예



공연(연주)



국악한마당



영화(친정엄마)

② 문제점

- 아파트 공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일기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
- 오히려 소외된 남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

③ 개선방안

- 소외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참여방안 검토(지역사회 복지관 및 주민센터 협조)가 필요함.
- 사업 대상자들의 혜택 수혜 시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④ 기대효과

- 기획바우처 <한여름밤의꿈>은 대체로 지역사회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잘 짜여져 있었으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원봉사자의 연령도 다채롭고 참여자도 지역주민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마을 축제로 엮어져 있었음. 문화바우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많은 주민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소외 받지 않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램.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문화바우처의 사랑을 넓은 품안에
제안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08 월 9 일
제안자	임 정 규

① 현황

1. 문화바우처와 문화카드 개요

1) 정의

- 문화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문화카드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명칭

2) 자격요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지원 대상 가구 내의 만10-19세 청소년(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1인당 5만원
- 복지시설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1인당 5만원
- ※ 최대 가구당 7매 발급 가능

3) 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카드
 - 카드 1장당 5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는 형식.(2011년 도입)

- 2012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장 발급이 가능한 후기명식 카드제 도입
- 기획바우처
 - 문화카드를 사용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카드 1장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공연 관람 서비스 제공.
 - 수혜자를 공연장까지 모셔오는 ‘모셔오는 서비스’와 거동이 힘든 분들을 방문하는 ‘재가 방문’ 등의 형태로 운영.
 - 기획바우처 사업은 지역주관처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음.

4) 책임기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 주관 : 16개 시·도 지역주관처(대전광역시 문화재단)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 문화바우처와 문화카드 사업 현장 방문과 인터뷰 내용

- 일시 : 2012년 8월 2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대전시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과 문화의 거리 일대
- 사업명 : 문화바우처-기획바우처-문화발도장찍기
- 사업참가자 : 신성동 중앙아동센터, 산성동 지역아동센터 각 10명씩 2조, 20명
- 사업스텝 : 문화재단 담당자 2인, 자원봉사자 4명
- 당일진행 : 우리들공원 무대 집결
 - 두조로 나눠서 튜릭아트 2종류 사진찍기
 - 산호여인숙 방문
 - 도자기 체험
 - 점심식사
 - 연극관람
- 현장 스케치
 - 8월 2일 문화바우처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에 도착. 건너편 무대위에 어린이와 어른들 모여 있음. 매우 더운 여름날씨에 문화체험을 하러 온다는 소식에 모니터링을 위해 갔지만 서로 대면대면한 상태로 이동함.
 - 문화체험을 위해 온 참가자들은 모니터링을 하러 온 요원(당일 3명)에 대해 약간 불편한 느낌을 보냄. 모니터링 요원의 입장에서 참가자들을 봤을 때는

더운 날씨에 동원되어 온 느낌, 위축된 상태가 느껴짐.

- 사전에 문화재단 담당자, 체험참가자들과 충분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거리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모니터링을 온 이유를 설명하고 인사하며 체험 장소로 이동.
- 체험 장소로 이동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인솔자가 아이들에게 사진찍기를 권유하고, 더워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있는 장면, 왜 대흥동이 문화체험 장소인지, 튜리아트의 재미 등의 설명은 빠진 채 사업을 위한 진행에 맞춰지는 대상자, 대상자의 욕구는 크게 반영이 안된채 또 다른 체험공간으로 이동.
- 문화활동가들이 만든 대전산호여인숙에 방문. 간단히 산호여인숙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은 후 10분정도의 시간으로 관람 끝내고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3군데의 장소에 이동, 간단히 구경 및 사진찍기 등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수혜자중심의 문화체험 보다는 사업진행자 입장에서의 문화체험으로 보여진 아쉬움이 남음.
- 두 팀의 지역아동센터는 하루에 같은 일정을 참여했지만 서로 교대로 움직이는 정도였으며, 오전 중 마지막 도자기 만드는 장소에 도착하여 한 자리에 모임. 서로 더운 날씨에 약간의 휴식을 하고 바로 도자기 만드는 작업에 들어감.
-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드는 느낌은 참가자들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임. 위로부터 기획되는 내용을 아래로 전달, 수행하는 정도로 보여지며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복지의 가치를 전달하는 맥락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느껴지는지 파악하기 힘들었음.
- 도자기 체험을 하는 동안 약간의 시간을 내어 아래와 같이 문화재단 담당자 인터뷰1과 같이 진행함.

Ⅰ인터뷰 1 : 문화재단 담당자(여)

1)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는가?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 있다. 그리고 문화기관들의 내부 사정(연극공연과 외부 활동)으로 인해 스케줄 조정이 급박하게 파악되는 점이 어려움 있다.
- 이번에도 사업준비 기간에 원도심 기관 협조에 어려움 있었다. 기본 계획 스케줄이 정해져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사정상, 유관기관 일정상 변화 가능성이 많음. 프로그램 취지는 좋지만, 돌발적 상황이 많이 있다.

- 2) 지역아동센터 참여자들은 어떻게 모집하는가?
- 지역아동센터의 연초, 총회때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공문을 배포하고, 오늘은 2군데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
- 3)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 발도장찍기 프로그램은 6개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카드는 연 1개가 발급되며, 차량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 4) 문화바우처를 통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가?
- 문화카드는 5만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카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좋은 사례로 아버지와 딸이 평소엔 서먹하고 대화도 잘 하지 않는데,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의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가졌다고 들었다. 또 문화바우처 수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문화바우처 활동 스텝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접했다.
- 5) 이와 관련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
- 홍보는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지하철에 배너도 설치하였다. 작은 홍보문구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명시하기에도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심 끝에 <문화 예술의 감동은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만들어 홍보하였다.
- 6) 참여자들의 성별 특성을 접한 적이 있는가?
- 남녀차이로서, 성별 요구도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정책모니터링의 취지를 들어보니 필요하다고 본다.
- 7) 앞으로 더 발전적인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 정부간 협조-지자체 내 기관-가맹점-참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 정도 된다.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인터뷰 2 : 대전문화연대 사무국장(여)

1) 현재 기획바우처에 대한 의견

- 문화바우처 취지는 경제적인 소외가 문화적인 소외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따른 대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과 연계되는 현실이다.

2) 기획바우처에 대한 우려

- 저소득층 아이들은 문화바우처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시혜정책이 쏟아지고 전달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프로그램을 각각 달리 접근해서 진행되고, 공짜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획바우처 사업들이 대상집단에게 일회적이거나 단발적 체험으로 그치다보니 빵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

3) 발전적인 기획바우처 사업에 대한 제언

- 문화바우처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소외가 문화적인 소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이를 뒤집어 본다면 ‘문화적인 소외는 경제적인 소외로 이어지지 않는’ 맥락이다.
- 대상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고, 외연을 넓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주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하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외곽지역민도 거리상 문화소외자로 볼 수 있다.
- 경제소외계층은 100%무료지원으로 바우처사업을 하더라도, 다양한 소외계층에게도 일부 부담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계층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③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성인지관점의 모니터링 의견

- 문화바우처는 문화카드사업과 기획바우처 사업으로 대표되며, 문화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문화복지의 폭을 최대화하기 위한 문화나눔 실천을 전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년간의 문화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수준

에서 정책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또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여기에서는 성인지관점에서의 문화바우처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현행 자격조건은 저소득층이지만, 그 내부에는 다양한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들이 존재함. 그럼에도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 짚을 필요가 있음. 위 자격조건들은 행정적 용어이며, 한부모 여성, 장애여성,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과 아동에게는 와 닿지 않는 설명이며 어렵게 보여짐.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문화바우처 홍보리플렛 등에 명시된 위 자격조건을 더 간소화하여 표현하거나 대안적인 자격조건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명 '낙인효과' 를 아동, 청소년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을 가져야 함.
-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대로 우선순위 순서로 인식됨. 그러다보니 경제에 비해 문화가 비주류로 인식되고, 일반 대상보다 저소득층 대상이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음. 문화와 저소득층이 만나는 접점에서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행정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연계이며 협조임. 그러나 정부부처간-지자체 내 기관간의 연계는 시스템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연계가 매끄럽지 못함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관리해야 하는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대전시 자치행정국-5개 기초자치단체-동별 주민자치센터임. 동별 주민자치센터는 사회복지지원과 전달업무, 행정업무량이 많다보니,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까지의 협조에 대해 어려울 수 있다고 봄. 그럼에도 현행 대상자의 관리체계는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기획바우처 사업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문화사업을 전개함.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 뿐만 아니라 복지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부프로그램과 참여가 공존하고 있음.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은 기존 내용과 차별화 없이 진행할 경우 참여자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음. 또 모니터링 차원에서 기획바우처 사업인 '문화발도장찍기' 프로그램을 일부 참관해보니 아주 더운 날씨에 프로그램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비춰졌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면, 한 사업에 두 기관을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각각 일정을 달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여겨졌음. 왜냐하면, 따로 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일정이었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자존감과 적극적 활동 유도를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이 많은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임. 보여지기식에 길들여진 수혜자를 위해, 특정 한 집단만을 위한 관심을 갖고, 문화감수성을 전달하는 것이 문화바우처가 전하고자 하는 취지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함.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를 고려한 기획바우처 프로그램을 보완 및 재구성해야 될 때일 것임. 단편적이고,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이고, 문화소비자로서만 위치가 아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문화생산자의 패러다임을 통한 수혜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수혜자의 만족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기획이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또한 문화수혜자의 입장에서 문화체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당일 체험 모니터링을 통해 본 느낌은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한 통제 대상으로, 체험 결과를 위한 객체로서 위치를 가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 문화바우처는 문화에서 소외된 대상을 위해 찾아가는 정책이라면, 그 범주를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 소외대상 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문화소외는 지역여성의 입장에서 특히 기혼여성-돌봄의 주체로 요구되는 여성(30대 아이돌봄~50대 노인 돌봄)은 문화향유를 하기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육아와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으로 이중삼중의 우선순위 역할 요구로 인해 쉽지 않은 현실임. 여성들에게 마음편히 한달에 한번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 문화와의 만남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음. 공간적으로도 문화활동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가보다 외곽,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배려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한국사회 안에서 다문화여성들의 삶, 여성장애인의 삶, 한부모여성의 삶, 여성노인의 삶,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의 삶은 문화를 향유하기엔 가부장적인 문화와 시스템, 돌봄과 가사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온전한 개인은 없는 현실임.
- 이제는 문화바우처가 지향하는 문화복지의 가치를 재점검 할 때임. 위계적으로 중앙정부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전달되는 일방통행 서비스에서 쌍방향, 수평적 서비스 소통을 위한 체계를 점검해야 함. 문화적 소외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일 사업에서의 참여자의 의견을 모아내고, 느낌을 읽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획일적인 문화소비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문화생산과 향유의 접근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문화적인 소외 범주를 저소득층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더 큰 관점으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음.

④ 문화바우처 사업 현장 모니터링 사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진정한 의미의 문화 복지 제공을 위하여
제안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월 9일
제안자	정 샘

① 현황과 문제점

- 홍보

문화 바우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버스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버스 전광판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드물 뿐 아니라 홍보의 초점이 맞지 않음. 프로그램 특성상 수혜 대상자는 취약 계층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혜 대상자들이 밀집된 곳이나 접근성이 높은 곳을 공략해 홍보를 해야 함. 문화 바우처 사업이 본래 취지를 성취하려면 초점을 맞춘 홍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노출시키는 일이 시급함.

-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유용하지 않음. 복지 차원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기보다는 제도를 위한 제도처럼 보이며, 문화 체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일회적임. 이런 식의 제도라면 수혜자들이 문화 복지를 수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어렵고 만족도 또한 낮을 것임. 첫 체험 후 만족도가 낮다면 향후 이용이 불분명하며 지속성을 잃기 쉬움. 문화를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문화 바우처 사업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지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② 개선방안

- 앞서 언급했듯이, 홍보 면에서는 수혜 대상자인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

취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제도 면에서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수혜 대상자들이 밀집된 곳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노출시켜야 하고 인솔자를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여 반영해야 함.

- 정책 제안 : 1+1 제도

홍보 미비와 절차 등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단체에서 신청을 하여 이용하고 있음. 능동적인 개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1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음. 1+1제도란 수혜 대상자와 수혜 대상자가 아닌 1인이 함께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금전적인 문제로 지속적 시행이 어렵다면 이벤트로 일시적인 시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를 감안하였을 때 이용률이 늘 것으로 기대되며 홍보적인 면에서도 긍정적 일 것으로 보임.

③ 기대효과

- 수혜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 노출에 따라 이용자가 늘 것임. 더불어 수혜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이 반영 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따라서 문화 바우처 사업의 취지와 지속성도 획득될 것임. 1+1제도처럼 이용자를 고려한 새로운 제도를 시도해나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문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함.

- 문화 복지를 통해 성인지적 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함. 여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의식인 만큼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문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든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함.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장애인 문화바우처의 이용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08월 09일
제안자	한 희 선

①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문화바우처’ 사업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음. 장애인들의 바우처 이용률은 아주 낮음.
- 문화부에 따르면 2009년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21만7898명 중 장애인은 2만6873명(12.3%)으로 집계됐음. 당초 목표로 했던 장애인 이용비율 권고치인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임(경향신문 2010.01.13). 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화혜택이 가능하기에 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바우처가 장애(청각, 시각, 중증지적장애인 등)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연이나 영화표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장애유형과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
- 바우처로 주는 공연 관람표 대부분은 공연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외부 이동성과 접근성이 제한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큰 제약이 따름.
- 단체관람 등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장애시설 거주 장애인에 비해 대다수의 가정 장애인들은 더욱 이동이 어렵고 중증장애인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아예 바우처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② 문제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카드 이용률(2월 말 기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전지역 카드 이용률은 79%로 나타났음(중도일보.201203.15). 문화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카드 발급을 받고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임.

더욱이 홍보를 통해 문화카드를 발급하긴 했지만, 카드 이용까지는 독려할 수 없는 상황임.

- 대부분 장애인들은 혼자서 외출하기가 어려워 보호자 동반이 필수이고, 보호자가 동반한다 해도 계단,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일반인들의 시선과 선입견등으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문화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③ 개선방안

- 바우처 이용자체가 힘든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직접 집을 방문해서 맞춤형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획바우처' 사업도 다양한 형태로 확대 실시해야 함.
-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인이나 동반자, 보호자를 공연장으로 데려 오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1+1 문화바우처 제도'는 장애인은 공연관람을 도움 받고 더불어 자원봉사자도 무료관람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장애인이 마음 편히 공연을 즐길 수 있기에 활용해야 할 제도임.
- 장애 유형에 따라 문화바우처 이용 방법을 다양하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음. 즉 신체 움직임이 더 어려워 인터넷 조차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문화바우처의 활용범위를 넓혀야 할 것임.

④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다양한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관점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제2절 여성안전분야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중구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모니터링)
제안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월 17일
제안자	강 은 혜

1 현황

- 현장 모니터링 일시 : 2012년 8월 6일 오전 9:30 ~ 오후 5:00 ~ 6:00
- 위치 : 대흥동 418-1번지 일원 (대전여중 ~ 홍명프리존 일원)



● 인근 주민 인터뷰 내용

· 성인남성(47세) :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이 아닌 것 같으며,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없다. 체육시설은 바라지도 않지만 농구골대하나 없는 것은 너무나 것 같다. 공원의 의미가 여기는 의자에 앉아있는 의미 밖에 없다.

- 노인(남성,82세) : 이 동네 40년 동안 살고 있다. 밤이면 밤마다 매일매일 싸우는 소리, 술주정에, 얼마전에는 학생들끼리 칼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들 나와도 소용없으며, 그 때 뿐이다.
-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있다. 노숙자들도 많고 공원 화장실을 부수기도 한다. 공원을 없애버리거나 구나 시에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줘야 한다. 몇 번 민원을 넣어도 공원을 없앨 수는 없다고만 말하고 대책이 없다. 구에서 하는 회의에도 몇 번을 가서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있다고 공원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 노인(여성) : 공원이 있는 의미가 없다. CCTV 1대로는 안되며, 곳곳에 설치해주면 좋겠다. 특히 공원 옆 노인복지회관 앞에 설치해주면 좋겠다. 1대 설치된 그 쪽은 이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적히지가 않다. 사실은 여기에서 폭행이나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무서워서 저녁때는 나가지도 못한다.
- 성인여성(50대) :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다. 이곳은 주민들이 쉴 공간이 없으며, 우범지역이고 저녁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삼가고 있다. 그게 편하다.

2 문제점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	×	비고	
편의	1.1	여성친화거리 조성		×	꽃길, 휴게벤치, 가로등, 음악스피커 등 반영	
배려	2.4	편의시설 갖추기		×	간격 200m 이내 휴게의자 설치	
안전	3.1	안전한 시야 확보		×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조성	
		휴식공간의 시야 확보		×	벤치, 정자 부근 개방감 유지	
	3.2	범죄예방 설계 적용 (CPTED)	CCTV설치(여성친화산책로 및 주요 시설물)		×	등산로입구 포함 CCTV 적정위치 다수 설치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	적정위치 다수 설치
		외부조도		×	가로등 간격 30m 이내 또는 6~15Lux 이상 단, 여성친화산책로는 20m 이내 또는 15Lux 이상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은 학교(대전여중), 대전평생학습관, 대흥공원, 음식점,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음. 주택가와 상업가가 명확하지 않고 정비되지 않아 정리 되지 않은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후미지고 칙칙함.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없는 환경임.



주택 앞 모텔



공원 앞 모텔



음식점, 모텔



주택, 식당

- 구도심의 중심가인 은행동과 애견골목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음. 변화가이고 다양한 층이 이용하고 있는 역동적인 은행동에 비해 이 구역은 조용하고 한적하며 은행동에 비해 볼거리나 이용시설이 없이 음식점도 폐점인 곳이 많았으며,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로 포장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주었음.



금이가고 갈라진 보도 블록

- 대전여중 및 대전평생학습관 주변은 전선이 낮게 노출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 모두에게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음.



밖으로 나와 있는 전선

- 이 구역 중간에 위치한 대흥공원은 놀이터와 화장실, 벤치 등이 있으나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매우 불량하고 너무 더러웠으며 남·녀 이용표지판 설치도 되어있지 않고 형광등은 수명이 다하여 이용하는 화장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음. 또한 아동을 위한 공원 내 미끄럼틀과 공원 한 가운데 공연장 같은 무대가 있지만 아동이 이용하기엔 공원 곳곳이 너무 청결하지 못하고 아동이 넘어지기 쉬운 바닥이며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의 지붕은 구조 자체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더운 날에는 햇볕이 차단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가운데에 설치되어있는 무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연을 한 적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함.
- 저녁부터 새벽까지 노숙자 및 불량청소년들의 잦은 싸움과 폭행사고가 일어나고 (흥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음)공원 시설물을 파괴하여 경찰들이 거의 매일 출동하고 있음. 공원 앞에는 모텔, 공원 옆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음.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 15여명 정도가 계셨는데 방문 했을 때는 어르신 15여명 정도

가 계셨는데 저녁이 되면 때 공원에 아예 무서워서 나갈 엄두를 못 내신다고 함.



시야를 가리는 나무와 널러져있는
쓰레기



표지판 없는 화장실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



형광등이 한 개만 들어오는 화장실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물



유아동을 위한 미끄럼틀 시설 / 넘어지기 쉬운 바닥



무용지물인 공원안의 무대



공원 안의 불필요한 구조물 (기둥)



공원 앞 모텔



공원 옆 노인복지회관

- 오랜 기간동안 철거되지 않은 건물 (15년이상)이 방치되어 있어 노숙자 및 청소년들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음.



15년 이상 방치된 공사가 중단된 건물

- 골목길 재생사업 구간에 위치한 산부인과 건물 : 음식점과 노래방, 유흥주점들 사이로 산부인과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



③ 개선방안

1.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보행로, 통행로 정비

- 대전여중~ 홍명프리존일원까지 안전하게 유모차를 끌고갈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하고 아동과 함께 중간 중간 설 수 있는 벤치와 휴식공간, 공공 화장실을 마련해야 함.
- 은행동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활성화 된 곳처럼 여성과 아동이 이동하기에 안전한 도로 정비와 밝은 조명 설치가 필수이며, 공사가 중단 된 오래된 건물 철거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보도블럭 설치가 필요함.

- 주택 및 공원 앞에 모텔이 위치에 있고, 음식점, 노래방,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상업, 주거지역을 정비와 어떠한 모습으로 골목길을 변화 시킬 지에 대한 지역주민참여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특별히 노약자 및 여성 등 안전에 대해 특별히 더욱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이 꼭 참여하여 이 골목길의 가장 큰 문제인 “안전”을 위한 정비가 꼭 필요함.
- 가로등 및 밝은 조명 설치 필수 : 전체적으로 골목길 자체가 어둡고 후미진데 가로등 설치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설치되어있지 않음.

2. 대흥공원정비

- 공원 관리인 투입
(위생과 청결에 문제가 되는 공원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게 함)
- 청소년봉사활동 인증
(공원 관리인 투입이 어렵다면 중구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봉사활동을 공원 청소로 인증받을 수 있게 함)
- 편의시설인 화장실 보수공사 필수 (위생 및 청결상태 최하수준)
→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설치
- 화장실 표지판 설치(남 녀 구분 없음) 필요
- 방범초소 설치 , 야간경비체제운영, CCTV추가설치 필요
(그동안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어 구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음)
- 중앙무대 및 기둥 등 불필요한 구조물을 폐쇄하고 아동 및 청소년, 어르신 등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건전한 놀이공간 및 벤치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이 필요함.
(전통놀이 체험장, 포토존, 농구골대 설치 등)

3. 공원 폐쇄 / 용도변경

→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놀이공간, 엄마와 자녀를 위한 키즈카페 등의 시설로 변경

4 기대효과

- 전체적으로 어둡고 쾌적하지 못하며 이용하기에 불편한 보행로를 정비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골목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흥공원에 대한 보수로 여성 및 아동, 청소년, 어르신 모두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공원이 될 수 있음.
- 노숙자들과 청소년들의 폭행 및 기물파손 등 사건 사고가 많은 이 구간에 방범초소 및 야간경비 인력 투입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시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제목	배움터 지킴이
제안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월 13일
제안자	김 나 영 / 강 전 희

1 현황

1. 추진목적

-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연계지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일탈행위를 현장에서 차단
- 주변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된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지원

2. 추진방침

- 배움터지킴이는 청소년 지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정
- 배움터지킴이, 교원, 학부모 간 긴밀하고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
- 운영 상황의 정기 점검 및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홍보
- 활동사례 발표 등 연수를 통한 배움터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

3. 선정 대상 : 퇴직교원, 군인, 경찰,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청소년지도 경험이 있어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발·위촉할 수 있음.

4. 2011학년도 배움터 지킴이 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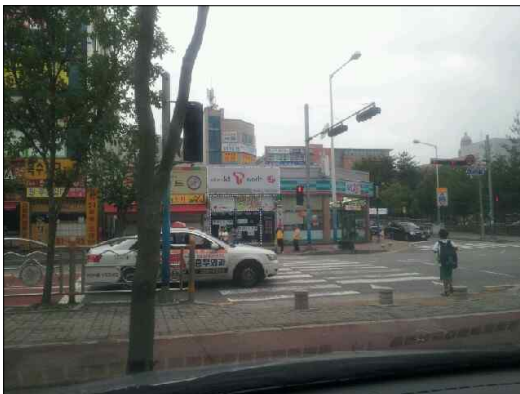
	학급수	학생수(명)	배정인원(명)
동부중	784	26,830	56
서부중	1,072	37,701	72
고등학교	1,846	63,680	112
계	3,072	128,211	240

* 출처 : 대전시교육청

② 현장모니터(인터뷰)

① 서구 복수동 신계중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배움터 지킴이 인터뷰

- 신계중학교는 현재 지킴이는 2명 (남자) 등하교 안전지도를 교대로 하고 있다.
 - 근무시간은 아침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오전8시경~4시)이며, 등교시간 후는 학교주변에서 안전순찰과 지도를 한다.
 - 교육은 3월경 1회이 있다. 하계방학 후 워크샵 1회 정도(교육의 필요성은 그 정도로 만족)가 있다.
 - 수입은 1일 식대포함하여 34,000원이며, 주5일 근무이다.
 - 지킴이는 전직교사 공무원 군인 퇴직자로 대부분 학교주변 거주자로 1년 계약직이며, 경쟁률이 제법 된다.
- 지킴이가 생각하는 개선점
- 학교장 및 교사들이 도우미 위상 및 입지를 높여야 지킴이들의 활동에 학생들이 신뢰를 해 줄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 학교에서 무관심 내지는 무시한 경향이 있어 힘들다.
 - 조회 때나 교직원 회의 등에 지킴이를 참석시켜 학생지도에 대한 서로의 소통을 하고 학생 상담이나 지도에 기여하도록 학교장이 배려하여 효율적인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인근 신계초등학교에는 꿈나무지킴이가 있는데 그분은 배움터도우미에 비해 많은 자신감과 학교장과의 소통과 인간관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② 법동중학교 2학년 남학생

- 1) 지킴이가 계셔서 좋은 점 : 등·하굣길에 신호등이 없는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을 지켜주셔서 좋고, 외부에서 학교로 진입을 통제해주셔서 안정감이 있다.

학교 내 주변(주차장,1층 복도 등)을 청소고 해주신다.

- 2) 불편한 점 : 군것질을 하러 교문 밖으로 출입을 통제할 때 불편하다.
- 3) 개선할 점 : 학생들의 태도가 불량한 느낌이 들면 학생들 간에 차별하고 욕을 할 때가 있다.

③ 삼천중학교 3학년 여학생

- 1) 지킴이가 계셔서 좋은 점 : 지킴이 계셔서 항상 든든하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 2) 불편한 점 : 복장단속과 학교생활전반에 잔소리가 심하다.
- 3) 개선할 점 : 신경안써서 모르겠다.

③ 개선방안

- 「배움터지킴이」 운영실적에서 인원을 조사 할 때 성별분리통계를 할 수 있도록 별도칸을 만들어야 함.
-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여 지킴이들의 성별분포도와 그에 따른 교육내용이 달라야 함.
- 교육회수도 년4회 실시해야 하며, 내용도 언어폭력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교육과 남·녀 차이로 인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켜야함.
- 배움터지킴이 모집과정에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여성 지킴이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 타시도에서 발생한 지킴이 성추행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지킴이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의 다양한 소통을 이용하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학교가 될 것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문화센터 인근 골목길을 중심으로)
제안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 년 8 월 9 일
제안자	노 순 아

① 현황

· 2012년 8월 6일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 사업인 중구 대흥동 평생교육 문화센터 인근 골목길 중심의 현장을 방문함.

- 가로등이 한 두 군데 뿐, 거의 없거나 있어도 녹슬고 고장나 있었음. 특히 밤길에는 조명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주민들도 저녁에는 다니기 꺼려한다고 함. (48세 여성 주민 인터뷰)
- 대전여자중학교가 있는 지역에 술집, 모텔 등이 즐비하며 좁은 골목에는 산부인과가 특히 눈에 띄었음.
- 이 지역내의 대흥공원을 살펴보니, 화장실 출입구에는 남·여 구분의 표시조차 없었음. 화장실내의 전등은 대부분 녹이 슬어있고 형광등은 고장 나 있으며, 환기통은 작동되지 않았음. 내부벽면도 지저분하고, 세면대는 비위생적 상태임. 장애인 화장실은 손잡이가 녹슬고 헐어서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위험한 상태임.
- 공원 안에 어린이용 놀이기구(미끄럼틀)는 바닥에 울퉁불퉁한 돌들이 깔려있어 어린이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 (30대초 여성 주민 인터뷰).
- 시설 주변 곳곳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음.
- 도로의 바닥면 : 여러 곳이 갈라지고 깨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체인들이 버려진 상태로 노약자, 유모차 어린이들이 보행에 다칠 수 있는 상황임 (출근길 20대 여성 주민 인터뷰)
- 일방통행지역에 택시나 승용차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보행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음 (모니터링 요원 체험)

- 조경 : 나무 밑동에 버려진 공사쓰레기들과 생활 쓰레기들은 나무를 훼손시키며 환경파괴를 가져옴.
- 짓다 만 건물 : 15~20년째 방치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범죄지역으로 악용될 우려 있음 (81세 노인 주민 인터뷰)
- 전기줄 : 많은 전기줄이 매우 복잡하게 여기저기 늘어져 있어서, 감전 위험성이 있고, 도시 미관을 해하고 있음.
- 주차장 : 좁은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통행에도 불편을 줌(60대 여성 주민 인터뷰)
- 결론적으로 이 골목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고, 안전성 확보는 기대난이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매우 비우호적이며, 범죄공간으로 이용되기 쉬운 분위기가 감지되었음.
- 현장사진



② 문제점

- 이 구간의 지역은 여성에게 매우 불안한 지역임. 낮에도 이용하기 위험한 공원 및 시설들, 어두운 시간에 거리의 조명 등은 좁은 골목길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등의 여성 안전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교육적으로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분위기임. 유흥업소들이 가득 차 있고, 공원은 우범지역화 되고 있음. 낙태를 조장하는 듯한 거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유모차,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불편한 도로면 등, 급습 당할 위험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매우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③ 개선방안

-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의 확보,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방범초소, 경비시설 증설, 위험상황 시 대응 안내표지,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로 바닥면 :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 필요
- 구역내의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중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영성한 구조물들이 있음.
- 날씨변화에 안전한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등나무와 그늘막, 눈 · 비 가림막의 설치 정도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40대 후반 남자 주민 인터뷰)
- 교육기관(대전여자중학교)과 주택가가 있는 지역 안에, 여관, 모텔, 호텔, 노래방, 술집 등이 모여 있음.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저해하는 환경임.
- 이와 같이 교육에 유해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시당국이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임.
- 많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제도적으로 규칙적인 관리와 보수·유지를 위해 직업적인 청소 · 관리요원 필요함.

④ 기대효과

- 현재의 상태는 특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고 청결과 교육 등에서 많은 불편함을 안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이 사업에 시민 수혜자의 요구 및 의견과 성인지적인 정책을 반영하면, 보다 여성친화적인 시설물과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그리하여 대전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 3절 도시공간·환경분야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월평공원시설확충사업(등산로)모니터링
제안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환경
제안일	2012년 8 월 6 일
제안자	안 성 숙

1 현황

· 현장 모니터링일시 : 2012년 7월 30일 ~ 8월 3일

1. 이용현황

● 이용자

- 월평공원은 지리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서·남부권에 위치한주로 산림으로 이루어진 도심의 공원으로 서부 생활권에 의거 주민의 등산코스로 제격이며 특히 산세가 험하지 않고 높낮이 차가 심하지 아니하며 등산로가 장거리로 부녀자, 노약자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임. 공원시설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등산로부분이 계단으로 교체되는 등 공원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의견을 받아 만족도 평가와 그 밖의 것들을 정리하였음.
- 여름폭염으로 인해 모니터링은 새벽시간대와 저녁 5시 이후에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시 산악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였으며 현장모니터링은 평일대의 모습이며 주말에는 가족단위의 모습이 많이 보이나 모니터링을 한때가 평일이었고 또한 휴가 때와 겹쳐져 가족의 모습은 전처럼 많이 접할 수 없었음을 밝혀둠.

● 월평공원 등산로 공사 후 모습(사진)



2. 월평공원 내 등산로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등산로 확충시설이 생긴 이전과 이후 변화에 대한 만족도

● 시민들의 이야기:

- 시민1 (男(42), 갈마동) :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굴곡진 부분을 바로 편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건설장비가 자주 오가느라 연약한 지반이 패여 등산객들이 산책하는데 오히려 불편해졌다.
- 시민2 (女(55), 월평동) : 정감 넘치고 아기자기했던 등산로가 삭막한 인도처럼 변했다.
- 시민3 (男(62), 월평동) : 이런 길을 보행하면 짜증만 난다. 나무와 나무뿌리도 상처를 입었다.
- 시민4 (男(52), 내동) : 곧게 펴는 건 좋지만 마치 황폐화된 등산로 같다.
- 시민5 (男(49), 가장동) : 나무가 많이 훼손되었다.
- 시민6 (男(36), 도마동) : 편해서 좋기는 하지만 마음한편 자연친화적인 면을 잃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 시민7 (男(43), 도마동) : 등산로 계단을 이용 시 편리함을 느끼지만 경사가 가팔라서 위험을 안고 있다.
- 시민8 (女(54), 월평동) : 각 계단의 폭은 좁고 높이는 높아서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안전 상 위험의 문제가 있다.
- 시민9 (女(44), 용문동) : 길이 험해 위험할 수도 있는 길에 계단이 생겨 좀 더 편하게 길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 시민10 (女(56), 월평동) : 돌계단이 생김으로서 등산로가 한층 더 깔끔하게 변했고 전체적으로 미관상 나아졌다.
- 시민11 (男(46), 갈마동) : 긴 계단 길 중간에 등산객들이 잠시 쉴 수 있게 아담한 공간도 생겨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 시민12 (女(49), 괴정동) : 계단 길 양옆에 손잡이 및 떨어짐 방지 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다.

② 문제점

1. 시설확충 측면 쪽에서 바라본 문제점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상	중	하
접근	등산로 계단을 통한 접근성 증가	등산 소요 시간 단축	V		
	등산로 변화에 따른 접근 의욕 감소	등산로의 임도화			V
편의	등산로의 지면 정리	등산로 보행 시 불편함			V
안전	등산로 사고 방지기능 강화	등산로 계단경사로 안전		V	
		경사로 손잡이 안전		V	
배려	등산로 계단의 구조적 변화 필요	여성 및 노약자 계단 이용 시 불편			V
	심야 치안수준 강화	심야시간 여성 및 노약자 통행 시 위험			V
쾌적	등산로의 미관상 쾌적함 증대	설치된 등산로와 자연의 부조화			V
	환경 친화적 쾌적함 강화	공사 후 잔해들 처리 미숙			V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1) 접근성

- 등산로에 경사가 심한 부분에 계단이 설치됨으로서 등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접근성이 확실히 증가되었음. 하지만 대전월평공원을 넘어 출퇴근을 하다보면 등산로가 요상하게 변형된 걸 느낄 수 있었음. 처음엔 중장비를 동원해 등산로 요철을 바로잡는 줄 알았는데 공사 안내를 보니(사진자료 참조) 그게 아니었음. 왜냐하면 월평공원 능선 등산로는 종전에도 산책하기에 최적의 노면 환경을 제공했지만 일부 험로가 있기 했지만 등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능선의 등산로가 임도화(林道化)되고 있었음. 등산로에 바위가 솟아오른 부분이 아예 파쇄되어 돌조각으로 퍼져있는 것임. 공사개요를 들여다보니 등산로가 이렇게

훼손된 데는 이유가 있었음. 바로 등산로가 중장비 진입로로 활용된 것이 그 이유였던 것임.



2) 편의성

- 주능선 등산로 가운데 가장 묘미가 넘치는 굴곡 길이었는 데 임도처럼 싹 밀어버렸고 중장비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바닥이 다져지지 않아 흙먼지가 날리고 날카로운 자갈투성이가 되어 버렸음. 물론 지금은 공사 중의 불편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굴곡의 묘미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임.
- 우기와 동절기를 거치는 동안 노면이 진흙범벅이 되고 얼었다 녹았나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모습 등산로를 보여주는 곳이 월평공원의 모습이었고 그게 자연일 것임.

3) 안정성

- 등산로 계단이 설치된 이후로 접지력(接地力)이 떨어지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야기되고 있음. 등산이나 자전거 타는데 어려움이 있음. 전에는 등산로로 자전거동호인들이 야간 라이딩이나 자전거 출퇴근도로로 적잖게 이용하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으며, 자칫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음.
- 물길 때문에 다시 고랑이 생기고 토사가 밀려 내려가 굴곡이 생기고 있음. 지난 수년간 월평공원 등산로를 다니면서 매년 달라지는 노면 환경을 목격했었는데 편리함 뒤에 오는 위험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음. 중장비를 동원해 잘 다져도 물길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됨.

4) 배려(성별요구도)

- 등산로 계단경사면이 가팔라서 여성과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다소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 산의 주변경관이 시설정비로 편해지기는 하였으나 월평공원의 산재되어있는 묘지

들과 뒤섞여 밤에는 다소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주변 환경의 위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5) 쾌적성

- 아무리 시설정비의 일환으로 공원이용객의 편익증진제고도 좋지만 등산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하였음. 잠깐의 쾌적함이 전에 느꼈던 월평공원의 쾌적함에 비길 수는 없을 것임.
- 요즘 들어 도심 인근 산에 등산객이 몰려들자 각 지자체마다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앞장선다고는 하지만 과잉 시설은 오히려 안하니 만 못하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임.

2.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월평공원의 문제점

1) 현 실태 및 문제점

- 대전으로 이주하여 월평대공원을 처음 본 것이 1988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변두리에 위치한 한적한 공원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고 훼손되지 않아 대전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음. 하지만 도안신도시와 유성이 개발되면서 점차 대전의 중심에 위치한 공원이 되었으며 마치 스테이크 찢어 먹듯이 공원주위에 여기저기 길이 나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훼손되었음. 공원이용객 중심의 공원시설의 업그레이드로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 환경 파괴와 그밖에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음.
- 상당수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대규모 인삼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종 토지라는 이유로 곳곳에 엄청난 수의 묘지가 들어서 이제는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 되었음. 설상가상으로 공원주변에 대한 고도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여기저기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동서대로가 관통하는 지역에는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갑절 우측에 도안신도시가 건설 중이어서 이제는 도심지의 외로운 섬으로 변모하고 있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묘지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구청과 구청장에 직접 건의를 했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대전시에서 적극 나서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사료됨.(공원 내 산책로를 중심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야간에 수많은 묘지를 보면서 공원 산책로를 거닐 수 있는 강심장은 별로 없을 것임.)

- 따라서 공원의 생태와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원 내에 산재한 묘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③ 총체적인 대전 월평공원의 개선내용

- 더 이상의 공원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시점을 기준으로 공원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기둥을 박아 어떠한 경우에도 공원 내에 여타의 시설물 설치를 금하게 하여야 함.
- 대전시 차원에서 공원 사유지 지주와 협상을 통해 대형 납골 시설을 만들고 기존의 모든 묘지를 납골당으로 옮긴 후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 공원을 원상복귀 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공원 입구에 차량 및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갈 때마다 불법으로 출입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공원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차량을 공원 내에 두고 입구를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 공원을 보호해야 할 것임. (특히 묘지를 만들기 위한 차량과 중장비가 수시로 공원을 출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함)

④ 총체적인 대전 월평공원의 개선 시 기대효과

- 공원을 보호하는 울타리나 기둥을 통해 이상 공원이 훼손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천변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
- 기존의 묘지를 납골당으로 옮기고 그곳에 나무를 심게 되므로 공원의 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으며 묘지에 대한 부담 없이 공원을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임.
- 공원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나무가 대폭 증가하여 오염물질을 흡수 제거하는 기능이 좋아져 대기 질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임.

⑤ 결론

- 만약 현 시점에서 공원의 훼손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이 시설확충이라는 명목일지라도 나중에 공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함. 따라서 대

전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임.



↳ 시설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병을 앓고 있었던 월평공원의 모습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공원 시설 업그레이드 및 이용객 편익 증진 성별영향평가 (남선 공원 테마 공원 조성 사업 & 공원 전체 성별 영향 평가)
제안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 월 1 일
제안자	오 민 정

① 현황

- 모니터링 일시 : 2012년 8월 1일 오전 9시 - 10시 15분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084번지에 위치한 남선공원은 탄방동 동쪽 유등천 기슭의 남선봉 주위에 조성된 면적이 148,587㎡인 공원으로 옛날 신선이 사방의 경치를 바라보며 놀다간 곳이라 하여 남선봉 이라고도 불리었던 곳으로, 나그네도 이곳에 쉬어가며 풍류를 즐기고 글을 지었다고 함. 1988년 공원결정이 된 남선공원은 관리 동, 어린이놀이터, 농구장, 야외무대, 노인 회관, 팔각정과 4,900㎡ 면적의 주차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규모는 작지만, 청결 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모니터링 시간이 아침이긴 하지만 아주 더운 날이라 공원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음. 고령자들과 아직 가벼운 등산 나온 여성들이 대부분임. 공원 입구에 노인 복지관이 있어서 고령자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음
- 이용자 만족도 (인터뷰)

- 성인 여성 : 거의 만족. 오래된 공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시설이라 잘 정비되어서 좋다.
- 노인 : 남녀 모두 여기 공원의 계단이 가파르고 주등산로를 제외하고는 노인들의 접근이 힘들다.
- 특히 애완견을 데리고 등산하는 분들의 배변 봉투 미 소지로 오염이 심각함.

- 남선 공원 테마공원 지역은 8역을 들어서 정비한 곳이며 전통 담장, 솟대, 불로문, 장승 설치등 화려함. 그렇지만 아침이라 그런지 그 영역에는 한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음. 휴식 시설이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시설 같다는 느낌을 줌.
- 곳곳에 CCTV와 가로등으로 보이는 영역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문 하나만 벗어나면 어둡고 안전에 있어서 취약해짐.



- 보수한 테마 공원을 조금 벗어나면 남선 공원의 전 영역을 접할 수 있는데 공원 이용자와 공원 탐방 등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② 문제점

- 남선 공원 입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공원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노인들은 물론이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려든가 장애우에게는 너무 힘든 길임. 공원 뒷부분은 거의 산길이라 한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에 손잡이가 줄로 연결이 되어있어 어르신들은 감히 시도하기조차 힘든 길임. 공원 입구에 그늘막이라든가 정자가 있으면 좀 더 나을 듯 함. 노인들은 주로 나무 아래 그늘을 찾아 쉬고 있었음.



- 운동 시설들이 있는 곳은 밤에 많이 어둡다고 함. 게다가 가로등 전구가 나간 곳들도 많고 특히 철봉은 여성들이 운동하기에 많이 불편하다고 함. 철봉에 매달리려면 팔을 뻗어 닿을 거리보다는 좀 더 높아야 하는데 160cm정도의 여성을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것, 다리가 닿는 것, 어린이용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함.



-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가 많이 쓰러지는데 뒤처리가 너무 늦다고 함. 길에서 넘어지기도 한다고 함. 혹 처리반이 오더라도 쓰러진 나무 정리하는 사람, 자르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달라서, 깨끗한 환경으로 복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사람이 모든 걸 같이 처리하기를 요청.



- 애완견 소지자의 공중 의식이 미비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함. 어렵게 ‘안내문’ 을 찾기는 했는데 숲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음.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면 나올 것 같음.
- 화장실 : 이정표가 드물어서 길을 잃기 쉬운데 힘들게 찾아간 화장실의 입구는 멋있는 그림으로 장식되어짐. 내부는 장애인 화장실은 잠겨있고, 남자 화장실은 타일이 벗겨져서 누더기가 되어있고, 여자 화장실은 바닥의 수채 거름망마저 없어서 아이들의 발이 빠지거나 물건을 빠뜨리기도 쉽게 되어있음. 오래된 곳이라 화장실 사이즈까지 이야기 할 수도 없지만 걸치장만큼 내부도 정리되면 좋을 듯함.



③ 개선방안

- 이정표를 좀 더 분명하게 눈에 띄는 색으로 했으면 좋겠음.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에게는 어려운 공원길이므로 이정표나 안내문 주위에는 전지 작업도 필요함.

- 공원 운동 시설은 좀 더 환하게 해서 여성들도 밤에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음. 가로등 전구 보수도 자주 하고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안보이는 안내판은 나무를 좀 정리해서라도 보이도록 했으면 함.
- 노인들, 장애우 그리고 무릎이 안좋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계단보다는 좀 평탄한 산책로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음.
- 화장실은 청결부터 신경써야할 듯함. 어른 주먹만한 사이즈의 수채 구멍은 아이들 발이 쉽게 빠질 것 같으며, 귀중품이라도 빠지면 찾기 힘들듯함. 화장실 정비가 필요함.
- 너무 전시적인 공원 정비는 지양했으면 좋겠음.

4 기대효과

- 대전의 어느 공원보다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좀 오래되다 보니 보수할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음. 그때그때 정비를 바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택가의 공원이라 특히 어두운 곳의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음. 가로등과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좀 더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음.
- 전시적인 보수 보다는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이 되었으면 함.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경 의식, 질서 의식도 같이 보수하였으면 함.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삼정, 진터 어린이 공원 테마공원 조성 성별영향평가
제안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 년 8 월 7 일
제안자	오 민 정

① 현황

- 유성구 구암동 603-1 과 609-1 동에 위치한 작은 공원 조합 놀이대, 파고라 설치, 블록 포장, 편익 시설 설치, 모래사장, 수목 식재 등에 2009. 3. 31~ 6. 3 까지 288,21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곳임.
-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두 공원 모두 경로당이 있고 어린이 놀이 시설은 한구석에 놀이터만 있음. 차라리 그냥 ‘**공원’ 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듦.

1. 삼정 어린이 공원

- 유성구 구암역 주변의 삼정 하이츠 옆에 조성된 작은 공원 : 이름은 ‘어린이 공원’ 인데 안쪽 구석에 놀이 시설 세 가지와 모래사장이 있고 더운 한낮이라 그런지 어르신 몇 분들만 정자에서 담소 중이었고, 어린이들을 한명도 발견할 수 없었음.



- 공원 바닥에 고추를 말리고 있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담소중인 것으로 사료됨.

에어컨 실외기의 더운 바람이 더위를 한층 가중시킴.



- 공원 내부의 블록을 잘 정리해서 차그마한 수목원 느낌의 정원을 만들. 화초가 말라가는 느낌은 있지만, 잘 가꾼 느낌임. 그런데 정원 바로 옆의 개인 주택이 있어서 불편해보임.



- CCTV를 비롯한 방범 시설은 완비되어 있고, 오픈 된 곳이라 위험은 덜할듯하지만 공원까지 오는데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걱정됨.



2. 진터 어린이 공원

- 유성 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공원으로 삼정 어린이 공원보다 더 작음. 역시 경로당의 위치가 가장 큰 공원임. 공터에 깨를 말리고 있고, 아이들은 한명도 보이지 않음.



- 경로당 옆에 재활용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곳이 위치해 있음. 그리고 공원 들어오는 입구의 쓰레기봉투가 별로 단정한 기분을 주지는 않음.



- 어린이 놀이 시설은 두 종류가 있음. 그리고 운동 시설도 두 종류가 있음. 바닥의 블록(돌?)은 깨져서 위험도가 있어 보이고 모래사장에는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 오히려 더 위험해보임.



② 문제점

- 삼정 어린이 공원과, 진터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공원’ 이라기엔 무리가 있음. 경로당이 크게 자리 잡고 바닥엔 깨와 고추가 널려있는 곳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지는 않음.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듯함.
- 모래사장의 모래는 제법 두텁게 많이 깔아 놓았음. 그런데 모래에 나뭇가지가 더 많아서 애들이 찢릴 것 같음. 깔아놓은 후에 관리가 필요해 보였음. 그리고 군데군데 담배꽂초가 있어 위생적이지 않아 보임.
- 두 곳 다 음료수 마시는 곳은 있지만 ‘마시지 마시오’ 라고 써어있고, 물도 전혀 나오지 않고 바짝 말라 있음. 낮이라도 수도를 틀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아쉬운 시설들도 보임.



지붕이 아쉬운 쉼터



여기는 편안해 보이는 곳

③ 개선방안

- 삼정 공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 삼정 어린이 공원의 관리를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2013. 1월 까지 월 10만원에 청소, 식물 보호, 시설물 등을 위탁 관리를 한다는 기사를 봤음. 폭염 때문이라 그런지 아님 관리가 소홀한 건 지 제대로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음.
-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야 함. 입구를 다른 쪽으로 더 내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듯함.
- 놀이 시설도, 쉬는 곳도 너무 외관에 치중한 듯해 보임. 놀이 기구는 거의 비슷한데 색이 화려해서 달라 보이기도 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임.
- 그리고 어른들 운동 시설을 좀 더 늘이면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음.

4 기대효과

- 구암동은 곳곳에 작은 공원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걷다가도 수시로 쉴 수 있을 정도였음. 큰 아파트 단지가 아니어도 쉴 곳이 많아서 편안해 보임. 그런 만큼 CCTV 가 공원에 하나씩은 있었음. 그리고 대전시에서 최근에 정비한 곳이라 아직은 파손이 되거나 크게 거슬리는 곳은 안보임. 그런데 너무 ‘보여주기’ 식의 공원 같은 느낌을 줌.
- 그러나 심는 것만큼 잘 가꾸어서 유지를 잘하기를 기대함. 놀이터 시설도 자주 보수하고 모래 정리도 잘해서 아이들이 깨끗하게 놀 수 있기를 기대함.
- 야간 조명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한낮이어서) 이런 시설이 우범 지역이 되기 쉬우니 조명 시설에 좀 더 세심하기를 기대함.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제목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및 갈마공원 일대 모니터링
제안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환경
제안일	2012년 10월 15일
제안자	이경하

① 갈마 공원 내 시설의 전반적인 이용현황

- 갈마공원내 이용시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축구장과 농구장으로 주말 오후 사용자의 대부분이 성인남성들과 청소년 남성이었으며, 농구장 한 옆에서 여학생 서너명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서 축구공이나 농구공의 위험해 보였음.



그림 1 축구장 1



그림 2 축구장 옆 농구장

- 대형 규모의 운동장에는 성인남성들이 축구경기를 하고 있으며 한쪽 골대 옆에서 한 여성과 아이두명이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



그림 3 축구장



그림 4 축구장

- 모래 밭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조형물에서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으로 공간의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그림 5 모래밭의 조형물

② 문제점

1. 접근성

- 공원입구의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나 완만한 보도는 시각장애나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 등의 보행을 배려함. 그러나 들어가는 입구의 보도블럭과 돌 조형과 입구의 하수철망이 진입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임.



그림 6 공원입구의 횡단보도



그림 7 공원입구

2. 안전성

- 전체공원 내 CCTV를 볼 수 없었음. 특히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가로등이 거의 없어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 함. (그림 8.9.10.11)



그림 8 공원 전경



그림 9 공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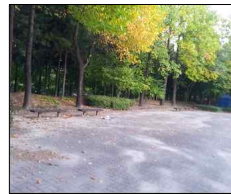


그림 10 공원 전경



그림 11 공원 전경

- 또한 공원내 설치된 몇 개의 운동기구들이 대부분 낙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어서 다소간의 보수가 필요해 보였음.



그림 12 공원내 체육시설

3. 편의성

1) 화장실

- 공원의 규모에 비해 화장실은 단 3칸짜리 한군데로 수적으로 부족하고, 화장실의 입구에서부터 턱이 10센티 이상으로 유모차 동반이나 휠체어 장애인의 사용은 불가능해 보였으며, 화장실 내의 청결상태도 불량함.



그림 13 화장실 입구



그림 14 화장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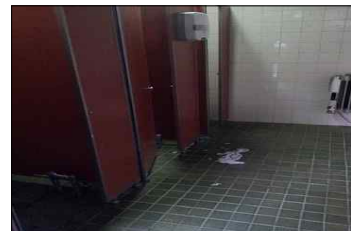


그림 15 화장실 내부

- 모범사례> 옥천의 문예회관의 화장실 전경으로 입구에 턱이 없으며 버튼식 문의 작동으로 문을 열고 닫는 불편함을 고려함. 또한 화장실 안의 설비들도 손잡이의 배치나 세면대의 구조역시 장애와 노인 등의 배려함.



그림 16 옥천문예회관 화장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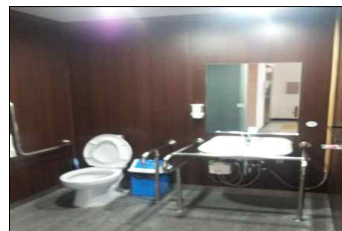


그림 17 옥천문예회관 화장실 안

2) 보도

- 공원내 거의 모든 이동 통로가 보도블럭 또는 계단식으로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노인의 보행에 편리하지 않음. 충격흡수적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편리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그림 18 계단식 이동



그림 19 보도블럭

3) 식수대

- 공원 내 식수대가 거의 없으며, 있는 것조차 무용지물인 상태임.



그림 20 음수대

4) 주차장

- 공원주차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생활관 내의 주차장시설의 경우 장애인 주차시설 옆에 차량이 인접하여 주차함으로써 실제로 장애인들의 시설사용에 불편함. 또한 여성전용주차장은 부재하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오전의 여성이용자, 퇴근 후 시간대) 시설이용자 대비 주차장 규모가 작아 이중주차 등의 주차불편을 초래함.
- 또한 야간의 경우 모니터링자의 차 라이트를 켜고 사진을 찍었는데, 주차장의 조명이 거의 부재하며, 주차장 주변의 나무와 벤치 등으로 주차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됨.



그림 21 턱있는 보도



그림 22 장애인 통과
불과 입구



그림 23 저녁 7경 주차장

③ 개선점

- 대부분의 학교 및 공원의 시설이 대형의 축구장 농구장 중심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모니터링 대상 공원에도 볼 수 있었음. 남성과 여성의 운동에 대한 요구와 취향 등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현황 임. 따라서 여성이나 청소년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공원 내 공간 배려가 필요함(예를 들어 베드민턴 장이나 족구장 등).
- 화장실 : 공원내 화장실의 신축이 필요하고, 입구의 턱이나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아이동반 여성 및 장애인이나 노인을 배려한 공간설계가 필요함.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제목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공간만들기 (창리어린이공원선진화 사업 모니터링)
제안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월 1일
제안자	임현정

1 현황

· 현장 모니터링 일시 : 2012년 7월 19일 오후 5시 ~ 6시

- 이용자 연령대 : 모니터링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방과 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유치 및 초등생)는 없었고, 5세 전후의 유아들이 5명 가량 있었으며, 청소년 4명, 30대 여성 2명, 40대 여성 1명으로 고령자들이 대부분(약 30여명) 대부분이었음.



주요 이용자

● 이용자 만족도(이용자 인터뷰 내용)

- 유아(6세, 남자) : 놀이시설이 없다. 옛날에는 그네도 있었는데...
- 청소년(15세) : 화장실 때문에 가끔 오고, 의자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전부이다.
- 성인여성(30~40대) : 집이 가까워서 가끔 오지만, 보시다시피 지저분하고, 놀이 시설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하다. 또 주말에는 주변 비행청소년들이 공원을 점령해서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애들 혼자 오기에는 주변에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 예전에는 구청 게시판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파손해서 없앴다.
- 노인(여성) : 거의 매일 여기서 낮 시간을 보낸다. 주변에 노인들이 많지만 노인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모여서 논다. 여기 정자는 여자들이 사용하고, 저쪽 배드민턴장 주변은 남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여자노인들은 10정도 된다. 여름철 잡초관리를 제때하지 않아서 풀이 너무 많다.
- 노인(남성) : 여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남자) 30여명 정도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주변에 불법폐기물(쓰레기)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이미지보다는 공터(텃터), 노인정 같은 분위기이며, 여름철 수목관리가 안 돼서 주변에 풀들이 무성하여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
- 주 이용자들은 평일 낮 시간에는 주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고, 주말(금요일~토요일)에는 주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주변시설물(안내표지판, 의자)들이 파손 혹은 노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음.
- 또한 공원의 위치가 도로 가각부분에 위치하여 아이들의 교통사고에 노출도가 높아 보이며, 공원가장자리의 펜스가 불필요하게 높아서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펜스의 철재소재 또한 어린이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철조물이어서,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쾌적성과는 거리감이 있었음.

② 문제점

1. 접근성

- 공원의 주 출입구가 공원편의시설인 그늘쉼터의 기둥과 의자, 조경시설(나무)로 인하여 동선이 막혀 있고, 좁아서 유모차, 휠체어 등의 접근이 불편함.(사진1)
- 또한, 주변의 불법주차 된 차량과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철재펜스로 인하여 공원전체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사진2)
- 출입구부분에 도로와 공원이 접하는 부분의 높낮이가 달라서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들이 출입이 불편함.(사진3)



사진1. 출입구



사진2. 공원주변



사진3. 출입구 턱

2. 편의성

- 이용자 수에 비교하여 벤치가 턱없이 부족하고 설치된 시설의 상태가 노후 되었으며, 화단의 무성한 풀들 사이에 설치된 의자는 이용할 수 없었으며, 큰 수목에 가려진 의자는 시야확보가 어려워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함.
- 화장실의 출입구의 형태가 화장실 안에서 이용하는 자의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게끔 설치되어서 이용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줌.
- 장애인 화장실이 동일 공간(여성, 남성)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이용 성향과 동선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으며, 출입구 또한 협소함.
(예 : 여단이문은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함)
-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소·대변기와 어린이용 세면대가 설치되지 않았음.
-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미끄럼틀 1개뿐이고, 그 외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전무함.
- 자전거이용자들의 자전거 보관·주차장이 없음.
- 공원시설물 안내 표지판이 없음.(파손으로 인해 설거한 상태)
- 운동시설인 배드민턴 코트의 시설물이 파손되어 이용할 수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편의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친화산책로 조성			√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 네트워크 형성			√
		보행의 연속성 확보			√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여행주차장 ¹⁾ 인증 프로그램 적용			√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행화장실 인증 프로그램 적용		√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어린이시설과 휴게공간의 연계성 확보			
공원의 안내표시판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3. 안전성

- 주 출입구의 턱이 높아서 유모차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에 위험해 보이고, 바닥이 균일하지 못하여 빗물이 고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임.
- 방법용 무인카메라가 1개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지만, 큰 나무사이 혹은 화장실 건물 주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 공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철재 펜스는 어린이나 노약자에서 위험해 보였음.
- 공원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과 주행차량이 이용자들에게 위험하고, 시야확보에도 장애가 됨.
- 비상벨 혹은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없음.
- 가로등이 2개로 전체적으로 어둡고, 나무에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안전	안전한 시야 확보	시설물의 시야 확보		√	
		사각지대의 제거			√
	범죄예방 설계 적용(CPTED)	시설물의 감시 기능		√	
	사고방지기능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

1)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이란 용어 중 여행은 여행(旅行)의 의미가 아니라 여행(女幸, 여성의 행복)의 의미이다. 서울시가 여성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도입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경사로 안전		√	
		시설물의 안전		√	
	방법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주·야간 경비시스템 구축		√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
		응급 의료시스템의 구비			√
	안전지역의 지정	인근지역의 안전지역 지정 및 운영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4. 배려(성별요구도)

- 나무 그늘사이의 산책로는 설치된 데크와 바닥의 높낮이가 커서 여성과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함.
- 식재 된 조경수들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각종 해충(모기, 파리)들이 많았음.
- 자판기, 공중전화, 이용자들의 기호에 맞는 운동시설이 없음.
-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았음.

(예 : 현재 주이용자는 지역 노인들이다.)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배려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	
		주변학교와의 학습장 연계			√	
		어린이놀이터의 주보행로 인접			√	
	운동시설 설치	운동시설 설치		√		
	편의시설 갖추기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설치			√	
		자판기의 설치				√
		공중전화의 설치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조성목적과 부합되는 공원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5. 쾌적성

- 공원내부에 불법생활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줌. 특히,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냉장고, 평상 등이 다른 이용자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줌.
- 어린이공원에 맞는 금연 권장공원 지정이 필요함.
-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절수변기 등이 없음.
- 전체적으로 여성과 노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디자인의 시설물과 색상 등이 이용자의 쾌적성을 떨어뜨림.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쾌적	환경의 쾌적성 증진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
		금연 권장공원 지정			√
	공간의 쾌적성 증진	쓰레기처리 및 관리 동선 마련			√
		기능과 미를 고려한 디자인			√
		공원주변의 쾌적성			√
	친환경 계획 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에너지 절약 방안 고려			√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
		옥상 및 벽면 녹화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 현장 사진



시야를 가리는 나무



부족한 어린이시설



무성하게 자란 풀



들어다보이는 화장실



하나뿐인 방법시설물



친환경시설의 부재



자전거주차장의 부재



미끄러운 바닥



불법 폐기물



어린이용대소변기부재



편의시설이 부족함



울퉁불퉁한 산책로

③ 개선방안

1. 접근성

- 높낮이가 다른 출입구 턱 개선 :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용 확대가 필요함.
- 출입구의 장애시설 제고로 충분한 공간 확보 : 공원 이용자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시설물 배치가 필요함.
- 철재펜스 제거 및 주변 불법주차단속(감시) : 접근을 높이고 시야확보의 효과가 필요함.

2 편의성

- 노후 벤치교체 및 추가설치
- 휠체어이용자를 배려한 출입구 확대 및 시야거리개용 펜스설치
- 어린이용 대·소변기설치 및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규정의 준수
- 자전거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 자전거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이용자를 배려한 시설이 요구됨
- 어린이 놀이시설(그네, 시소 등) 추가 설치 및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운동기구설치 : 사전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를 통한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요구됨.
- 어린이 공원안내판, 게시판 등의 시설물의 재설치와 관리
- 배드민턴장 철거와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 : 이용되지 않는 체육시설을 없애고,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3. 안전성

- 공원 내의 큰 나무들의 가지치기 : 범죄 사각지대 제거 효과와 시야확보
- 방범용 CCTV 의 추가 설치 및 비상호출장치 신규 설치 :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절실함.
- 주변도로의 과속방지턱, 어린이 출몰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 교통사고 예방효과
- 가로등 추가 설치 : 기존 2개 → 5개

4. 배려(성별요구도)

- 산책로의 데크 높낮이 조정
- 여름철 잡초 제거, 조경수 관리
- 어린이이용자들을 배려한 동선 개선과 시설 추가

- 음료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설치

5. 쾌적성

- 공원 내 불법생활쓰레기 정리
- 금연 권장구역 안내판 설치
- 친환경시설물(태양열/광 가로등, 화장실 절수기기)의 도입
- 시설물의 디자인과 색상을 보다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소재로 교체

4 기대효과

-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킴으로서 어린이공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이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반드시 주민 이용자의 수요도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둡고 칙칙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및 범죄 사각지대 제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어린이, 지역 청소년, 지역 어르신(노인)은 물론 주부, 주변 상인들과의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낮)시간대의 주 이용자들이 지역의 감시자 및 안전지킴이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역의 돌봄노동의 공유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됨.
(예 : 공원 안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을 설치하여, 지역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또한 친환경 시설의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의 효과와 함께 시민들에게 홍보 •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음. (하지만 재원확보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제목	사회적 약자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남선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제안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월 1일
제안자	임현정

1 현황

· 현장 모니터링 일시 : 2012년 8월 1일 오전 9시 ~ 10시

1. 이용현황

- 이용자 연령대 : 현장 조사시간이 오전이라 여성 및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음.



공원 전경

- 이용자 만족도(이용자 인터뷰 내용)

· 여성고령자 : 훼손된 나무가 복구가 안 된다, 여기를 이용한지 9년째지만 주로 이 시간(평일 오전)에만 이용하고 저녁에서 무서워서 이용하지 않는다. 주말에는 나들이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깨진 빈병 등으로 지저분한데, 제때 잘 치워지지 않아서 불쾌하다. 방법시설이 보완된다고 해도 밤에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 여성고령자 : 집에 가까워서 자주오는데, 대체로 만족하다. 다른 공원(산책로)과 비교했을때 깨끗하고 수도시설, 화장실이 편리하다. 저녁에도 7시 전후에 가끔 이용하는데, 최근에 공사를 마친 산책용 데크는 자연환경을 오히려 훼손하고 공원과

어울리지 않고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비가 온 뒤에는 오래된 나무가 쓰러질까 무섭다. 쉴 수 있는 의자가 더 있어야 한다.

· 여성고령자 : 가끔 애완견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오물처리를 안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공원 구석구석에 안내판이 없다.(화장실, 산책로안내) 여름철에는 쓰레기 냄새가 심하니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 여성고령자 : 낮에도 화장실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는데. 자동감시 센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도꼭지도 잘 안 잠겨서 물이 샌다. 철봉이 너무 높아서 여자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는데, 낮은 것, 좁은 것, 넓은 철봉 등 다양한 사이즈의 철봉이 있었으면 좋겠다.

· 남성고령자 : 공원 입구에 노면주차장 수를 줄이고 이층(타워형)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다. 공원 밑에 노인정이용자들이 공원의 계단이 너무 높아서 이용할 수 없어서, 입구의자에 주로 앉아 있는데 의자 수가 부족하다.

- 대체적으로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편이지만, 주로 공원 입구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보다는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많았음.
- 모니터링 사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용자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야간의 불법행위(야간 음주)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음.

② 문제점

1. 접근성

-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지는 남선공원 입구로 체육시설과 접한 주차장과 높은 계단은 유모차, 장애인, 여성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위험해 보였음.
- 또한 오래된 수목에 조명등이 가려져 야간 이용자들의 접근이 떨어짐.
- 전통담장이 공원의 산책로와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동선설계로 여성노약자들의 접근성이 떨어뜨리고 오히려 네트워크를 단절시킴.



계단으로 된 주출입구



주출입구 장애물



잘못설치된 산책로



단절된 산책로 접근



주차장에 가려진 입구

2. 편의성

- 공원의 특성상 경사도와 계단이 여성이용자들에서 불편함을 줌.
- 그늘막 휴게 시설과 의자가 부족하고 의자가 너무 높음.
- 공원 이용에 대한 안내표시(시설물 이용, 제한, 금지행위 등의 안내)가 없음.
- 남선공원 중턱에 위치한 화장실은 안내표시판이 없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잠겨있었음.
- 화장실의 조명이 너무 어둡고, 배수구의 뚜껑이 없어서 어린이이용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음.
- 화장실 주변은 낭떠러지로 안전막이 전혀 없었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편의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친화산책로 조성			√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 네트워크 형성			√
		보행의 연속성 확보			√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여성주차장 인증 프로그램 적용			√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성화장실 인증 프로그램 적용			√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어린이시설과 휴게공간의 연계성 확보			√
공원의 안내표시판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부족한 안내판



높은 의자



위험한 화장실주변



장애인화장실



어두운 화장실내부



위험한 배수구

3. 안전성

- 공원입구(체육관) 주차장 시설의 차량에 의해 이용자들의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음.
- 공원의 안쪽의 높은 나무 가지가 방법용 감시카메라를 가리고 있음.
- 공원 내의 시설물들이(배수관 등)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상판뚜껑의 구멍이 너무 큼.
- 여성고령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등산로의 계단의 잘못된 설치되었음.
- 저녁시간에는 공원 내에 설치된 조명이 어두움.
- 또한 테마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통담장이 오히려 공원의 우범지역을 만드는 시설물이 됨.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안전	안전한 시야 확보	시설물의 시야 확보			√
		사각지대의 제거			√
	범죄예방 설계 적용(CPTED)	시설물의 감시 기능			√
	사고방지기능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
		경사로 안전			√
		시설물의 안전			√
	방법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주·야간 경비시스템 구축			√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
		응급 의료시스템의 구비			√
	안전지역의 지정	인근지역의 안전지역 지정 및 운영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주차장과 점한 출입구



가려진 CC카메라



배수관 뚜껑



가려진 조명



담장의 사각지대



위험한 산책로

4. 배려(성별요구도)

- 주변시설물(노인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여성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산책로 출입구는 모두 높은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여성은 물론 장애인과 유모차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 운동시설은 주로 성인 남성이용자들에 맞춰서 설계된 것으로 여성의 이용에 한계가 있었음.
- 수도시설의 높아서 여성 및 노약자들이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로의 턱이 높아서 위험함.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배려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	
		주변학교와의 학습장 연계			√	
		어린이놀이터의 주보행로 인접			√	
	운동시설 설치	운동시설 설치		√		
	편의시설 갖추기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설치				√
		자판기의 설치				√
		공중전화의 설치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조성목적과 부합되는 공원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고령자들



계단으로만 된 출입구



불편한 수도시설

5. 쾌적성

-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함.
- 금연구역안내판, 애완동물출입주의판 등의 공원 안내표시판이 없음.
-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방안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친환경소재사용이 고려되지 않았음.
- 화장실 내부 조명이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설계되지 않았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쾌적	환경의 쾌적성 증진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
		금연 권장공원 지정			√
	공간의 쾌적성 증진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 마련			√
		기능과 미를 고려한 디자인			√
		공원주변의 쾌적성			√
	친환경 계획 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에너지 절약 방안 고려			√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
		옥상 및 벽면 녹화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에너지절약형설계의 부재



화장실실내등의
친환경센서등 부재



부족한 안내표시판

③ 개선방안

1. 접근성

- 여성은 물론 유모차와 휠체어 등의 접근을 배려한 출입구의 배리어프리설계법 적용되어야 함.
- 공원 주 출입구의 주차금지구역 설정 및 공원입구 안내표시판 설치가 필요함.
- 이용자의 동선을 배려한 출입구의 위치 조정과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함.

2. 편의성

- 이용자(주변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배려)의 특성을 고려한 공원 주변의 의자 및 쉼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함.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거치대 및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함.
- 계단으로 된 산책로에 여성이용자와 유모차도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의 개선의 필요함.
- 공원시설에 대한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야 함.(예, 화장실, 수도, 휴게시설 등)

3. 안전성

- 가려진 방법용 보안카메라의 주변 수목의 가지치기와 주 산책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 어두운 조명 교체하고, 수목의 가지치기를 통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함.
- 공원 내 기반시설물(배수관 및 하구시설 등)과의 접근을 제한하는 펜스설치와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야 함.

4. 배려(성별요구도)

- 금연시설안내 표지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함.

- 주변 경로당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산책로가 정비되어야 함.

5. 쾌적성

- 훼손된 수목 정비가 필요함.
- 친환경 시설 및 에너지 절약형 시설물로의 전환 설치가 요구됨.

4 기대효과

- 공원 출입구의 접근성을 높여 여성뿐 만 아니라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
- 방범용 카메라(비상벨) 설치로 인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 할 수 있음.
- 조경수 정비 및 보완으로 쾌적한 환경은 주민(어린이, 노약자)들의 쉼터공간이 되고, 이용률의 높일 수 있음.
- 공원 특징상 노인정과의 연계와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함.
- 공원 주변의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린이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음.
- 절전형 녹색에너지(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음.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제목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공간만들기 (삼정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
제안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년 8월 1일
제안자	임현정

1 현황

· 현장 모니터링 일시 : 2012년 7월 28일 오전 10시 ~ 11시

1. 이용현황

- 이용자 연령대 : 어린이공원시설이지만 어린이보다는 주변 성인남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음.



공원 전경

2. 이용자 만족도(이용자 인터뷰 내용)

- 놀이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짐(2년전에 설치), 그네, 시소 등이 없다.
- 이용하는 어린이도 없고, 구석에 위치한 놀이시설은 여중생(추측)들의 흡연장소가 되었다.
- 저녁에는 조명이 어둡고 고장이 잦아서 이용자들이 거의 없다.
- 공원 옆 아파트에 놀이터가 없어서 담장에 만들어 놓은 출입구로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만, 저녁에는 보안문제로 문을 잠그는데, 한 동네 주민으로서 기분이 좋지

는 않다.

-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안한다.
- 식수대가 예전에는 물이 나왔는데, 몇 달 전부터 물이 안 나온다.
- 또한 식수로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돼서 생활용수로 주변 식당, 노동자들이 사용했다.
-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있지만 주로 노상방뇨를 많이 한다.

-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었으며, 공원과 인접한 도로에 쓰레기 방치, 불법주차 등으로 공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공원 내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대부분 노후화 되었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아 이용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② 문제점

1. 접근성

- 공원을 둘러싸고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공원 입구가 안 보임.
- 공원 주 출입구에 전봇대가 있어서 유모차, 휠체어 등의 접근성이 떨어짐.
- 공원 이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출입구 설계로 인하여 공원 입구의 조경시설이 훼손됨.



2. 편의성

- 급수 시설이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었음.
- 공원 주 출입구의 턱이 높아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의 출입이 힘들.
-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의 종류와 디자인 등이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
-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원 내에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어

야 하지만 오후 시간대에는 잠겨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음.(세면시설, 남성 • 여성 공용, 양변기 1개, 소면기 1개 설치)

- 공원 내의 수목 및 조경 시설은 이용자들의 통행으로 훼손이 심함.
- 그늘막 휴게 시설이 하나로 휴게시설이 부족함.
- 공원 이용에 대한 안내표시(시설물 이용, 제한, 금지행위, 금연구역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편의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친화산책로 조성			√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 네트워크 형성			√
		보행의 연속성 확보			√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여행주차장 인증 프로그램 적용			√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행화장실 인증 프로그램 적용			√
	여성평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어린이시설과 휴게공간의 연계성 확보			√
공원의 안내표시판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고장난 급수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설



놀이기구 및 훼손된
조경시설

3. 안전성

- 공원과 인접한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과 공원을 침범한 차량으로 어린이 이용자들의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음.
- 또한 놀이시설 내부의 시야가 가려져 지역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공원의 안쪽은 주변의 높은 건물 등으로 시야가 가려지고, 탈선장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용 CC카메라가 없음.
-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의 바닥이 너무 딱딱함.
- 공원내의 시설물들이(배수관, 환기구, 지하수양수기 등)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주요 동선 상에 잘못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을 저해하고, 어린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 저녁시간에는 공원내에 설치된 조명이 어둡고, 고장이 많음.(인터뷰내용)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안전	안전한 시야 확보	시설물의 시야 확보			√
		사각지대의 제거			√
	범죄예방 설계 적용(CPTED)	시설물의 감시 기능		√	
	사고방지기능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
		경사로 안전		√	
		시설물의 안전			√
	방법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주·야간 경비시스템 구축			√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
		응급 의료시스템의 구비			√
	안전지역의 지정	인근지역의 안전지역 지정 및 운영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불법주차



공원 안쪽의 우범지대



하나뿐인 감시카메라



딱딱한 놀이터 바닥



잘못 배치된 시설물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

4. 배려(성별요구도)

- 하나뿐이 그늘막(쉼터)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공원 이용자의 동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공원 조경시설 훼손)
-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출입문 설치가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감을 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배려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	
		주변학교와의 학습장 연계			√	
		어린이놀이터의 주보행로 인접			√	
	운동시설 설치	운동시설 설치		√		
	편의시설 갖추기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설치				√
		자판기의 설치				√
		공중전화의 설치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구성목적과 부합되는 공원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여성을 위한 공간부족



잘못된 동선설계



인접 공동주택 주민과의
갈등요소

5. 쾌적성

- 공원 주변의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줌.
- 쓰레기 처리 시설과 금연구역안내판이 없음.
-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방안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쾌적	환경의 쾌적성 증진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
		금연 권장공원 지정			√
	공간의 쾌적성 증진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 마련			√
		기능과 미를 고려한 디자인			√
		공원주변의 쾌적성			√
	친환경 계획 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에너지 절약 방안 고려			√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
		옥상 및 벽면 녹화			√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③ 개선방안

1. 접근성

- 유모차와 휠체어 등의 접근을 배려한 출입구의 턱 낮춤
- 공원 주변의 주차금지구역 설정 및 위험 안내표시판 설치
- 이용자의 동선을 배려한 출입구의 위치 조정

2. 편의성

- 놀이시설의 재설치
- 노인정 화장실 개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표시와 시설개조
- 이용자(지역민 쉼터)의 특성을 고려한 쉼터(원두막형 평상, 그늘막의자) 추가설치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거치대 및 주차장 설치

3. 안전성

- 보안용 감시카메라의 추가 설치
- 어두운 조명 교체와 추가 설치 (현재 2개 -> 5개 확대설치)
- 공원 내 시설물(지하수 펌프시설, 배수관 등)과의 펜스설치

4. 배려(성별요구도)

- 여성과 노약자를 배려한 산책로 정비
- 금연시설안내 표지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안내판 설치
- 비상벨 설치
- 주변 경로당 이용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정비
(예 : 공동텃밭 운영)

5. 쾌적성

- 훼손된 조경시설 정비
- 불법쓰레기 정리
- 친환경 시설 및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적용설치

④ 기대효과

- 사각지대를 없애고, 방범용 카메라(비상벨) 설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음.

- 조경수 정비 및 보완으로 쾌적한 환경은 주민(어린이, 노약자)들의 쉼터공간이 되고, 이용률의 높일 수 있음.
- 공원 특징상 노인정과의 연계와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함.
예를 들어, 노인정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텃밭모임을 조직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공원시설 이용의 감시자 역할과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원 주변의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린이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음.
- 절전형 녹색에너지(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음.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공원시설 업그레이드 및 이용자 편익증진 (백운어린이공원시설 현대화 사업 모니터링)
제안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2012 년 7 월 31 일
제안자	정 혜 원

1 현황

· 현장 모니터링 일시 : 2012년 7월 25일 오후 2시~3시

1. 이용현황

- 이용자 연령대 : 5세 전후의 유아들 5명 정도, 청소년 3명, 50대 여성 1명, 60대 이상 여성 4명, 40~50대 남성 4명 정도로 총 17여명이었음.

2. 이용자 만족도(이용자 인터뷰 내용)

- 성인남성(40~50대) : 저녁이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한다. 파고라 처마가 너무 짧아 우천시에는 평상으로 비를 피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 불법폐기물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한다.
- 노인여성 : 거의 매일 오고 있으며 특히 저녁이후는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파고라가 두 개 있으나 남자들이 평상이 있는 파고라를 사용하고 여자들은 평상이 아닌 등 없는 벤치가 4개 있는 파고라를 사용하다보니 다리를 펼 수도 없고 손자녀 기저귀 갈기도 어렵다고 한다. 또한 놀이터 안 나무들을 제때 관리하지 않아 키만 커서 불빛을 가리기도 하고 벌레등이 생겨도 소독약이 미치지 않아 벌레가 너무 많다고 함. 놀이기구가 유아용으로 제작되어 초등학생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 총평 : 연령대를 골고루 만나지는 못했지만 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수목관리가 안되서 인근 주택까지 벌레가 날라들어오며 화단

조성과 배수처리가 잘못되어 우천시 공원바닥이 지저분해지고 이를 청소하기 위한 수도연결도 원활치 않아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문제점

1. 접근성

- 공원의 주 출입구와 각종 공원편의시설간의 동선은 잘 연결되어 있음.

2. 편의성

- 화장실의 출입구 형태가 이용자(남성)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설치되어 이용자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민망함을 줌.
- 화장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며 특히 여성용은 문을 여닫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아 노령으로 인해 동선이 큰 여성노인 경우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성적 수치감을 갖게 함.
- 어린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성인용 세면대도 없음.
- 장애인 화장실이 없음.
- 자전거 거치대가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편의	여성친화거리조성	여성친화산책로 조성			v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 네트워크 형성		v	
		보행의 연속성 확보		v	
	여성우선주차장설치	여행주차장 ²⁾ 인증			v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여성편의화장실설치	프로그램 적용			
		여행화장실 인증 프로그램 적용			v
	여성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어린이시설과 휴게공간의 연계성 확보		v	
		공원의 안내표시판		v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3. 배려

- 파고라 중 평상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남성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사용하는 파고라는 등 없는 벤치가 4개 있어 다리를 뺀고 앉을 수도 없으며 특히 영아 기저귀 교체가 너무 불편함. 또한 파고라가 없는 평상이 있어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는 사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음.
- 파고라의 처마가 짧아 우천시 비가 그대로 평상위로 들어와 앉기는 커녕 잠시라도 비를 피할 공간이 없음.
- 여름철에 선풍기라도 틀고 싶어도 콘센트 등이 없어 불편함.
- 비온 뒤 공원 바닥청소를 하고 싶어도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집에서 양동이로 물을 날라 청소를 하고 있음.
- 식재된 조경수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벌레들이 주택까지 날라 들어오기도 하며 잡초 또한 무성하여 함.
- 음수대, 자판기, 공중전화 등 이용자들의 편의시설들이 전혀 없음.
- 여성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체어웨이트는 작동이 힘들어 거의 사용하는 주민이 없다함)이 미비함.
- 어린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전용 놀이시설만 있을 뿐 초등생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놀이기구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음.



2)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이란 용어 중 여행은 여행(旅行)의 의미가 아니라 여행(女幸, 여성의 행복)을 뜻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여성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도입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배려	공원부지의 용도 다양화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v
		주변학교와의 학습장 연계			v
		어린이놀이터의 주보행로 인접		v	
	운동시설 설치	운동시설 설치		v	
	편의시설 갖추기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설치			v
		자판기의 설치			v
		공중전화의 설치			v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구성목적과 부합되는 공원		v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4. 안전성

- 공원바닥이 화단보다 낮고 배수처리(경사도)도 잘못 설계되어 우천시 화단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공원바닥을 더럽히며 물웅덩이도 많이 생겨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미끄러워 비위생적이고 위험함.
- 방범용 무인 카메라가 1대 공원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나 큰나무 사이나 화장실 주변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범화 될 수 있음.
- 방범 및 방재안전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안전	안전한 시야 확보	시설물의 시야 확보			v
		사각지대의 제거			v
	범죄예방설계적용(CPTED)	시설물의 감시 기능			v
	사고방지기능강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v
		경사로 안전		v	
		시설물의 안전		v	
	방법 및 방재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주·야간 경비시스템 구축			v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v
		응급 의료시스템의 구비			v
	안전지역의 지정	인근지역의 안전지역 지정 및 운영			v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5. 쾌적성

- 공원 안에 쓰레기통이 없으며 주변에 쓰레기 분리시설 등이 없어 공원주출입구에 주민들이 생활쓰레기와 폐기물들을 버려 불결하며 이용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줌.
- 어린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권장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에너지 절약 조명이나 절수변기 등이 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	상	중	하
쾌적	환경의 쾌적성증진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v
		금연 권장공원 지정			v
	공간의 쾌적성증진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마련			v
		기능과 미를 고려한 디자인			v
		공원주변의 쾌적성			v
	친환경 계획도입	친환경 자재 사용			v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	에너지 절약 방안 고려			v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v
		옥상 및 벽면 녹화			v

참고자료 :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③ 개선방안

1. 편의성

- 한 공간에 남성과 여성 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간상 증축이 어렵다면 성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규정의 준수가 요구되며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요구됨.
- 자전거 거치대 설치 : 자전거를 이용자를 배려하는 시설 요구됨.

2. 배려

- 평상이 있는 파고라 설치와 기존 파고라 처마 보수 요구됨.
- 주민 편의를 위한 전기배선시설과 수돗가와 음용대 설치 요구됨.
- 여성노인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 여름철 잡초 제거 및 조경수 관리(키 큰 나무 전지와 소독 철저)
-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설치 :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물 설치 요구됨.

3. 안전성

- 화단 재조성과 배수로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화장실 근처 등 방범용 무인 카메라 추가 설치

4. 쾌적성

- 주택가에 쓰레기 분리수거통 설치가 요구됨.
- 금연 권장구역 안내판 설치
- 친환경시설물(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절수변기 등) 도입

4 기대효과

- 현대화사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욕구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설치하여 투자한 비용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그럼으로 개보수시 필히 이용자들의 욕구조사를 선행하여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임으로 현재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인해 주민들에게 물리적인 쉼터만이 아니라 화합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쉼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부 록

부록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문

부록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지원
신청서 양식

부록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양식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에 문화바우처, 여성안전, 도시공간·환경과 관련하여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양성평등한 정책 제안을 만들고, 정부와 국민사이의 의사소통을 주도하는 정보전달자로 활동하게 될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모집에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 ① 모집인원 : 20명
- ② 자격 :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의 성평등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참여할 대전시민으로서
 -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등 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 ③ 활동내용 :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참석
 - 분야별 정책의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프로슈머 워크숍 참석
 - 분야별 정책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제출
 - 성 주류화 추진체계 운영 평가 지역 워크숍 참석
- ④ 활동기간 : 2012. 7. 9.(월) ~ 8. 8.(수)
- ⑤ 모집기간 : 2012. 6. 26.(화) ~ 7. 3.(화)
- ⑥ 지원방법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홈페이지에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
 -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 ▶ 자기소개 : 사회참여, 관심분야, 지원동기 등 간략하게 소개
- ⑦ 선발기준 : 경력,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⑧ 발표 : 2012. 7. 5.(목) 개별 이메일 공지
- ⑨ 기타사항 :
 - 모니터링 활동 등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예정
 - ※ 문의처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담당(전화 : 042-530-3548)

부록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지원신청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지원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우 -)				
연락처	(- -)				
Email주소	@	직업			

○ 관심분야(2개 이상 체크)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환경	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 참석 여부	참석한적 있음 / 참석한적 없음
---	-----------------------	-------------------

○ 자기소개(1,000자이내)

※ 사회정책 또는 사회참여 분야 주요경력(경험)사항, 관심분야, 지원동기 등 간략하게 기술



부록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서

제안 제목		
제안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화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input type="checkbox"/> 도시공간 · 환경	
제안일	년 월 일	
제안자	이름	
	연락처	
	E-mail	
제안내용	현황	

제안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제1기 활동 보고서

발행일 2012년 10월 31일

발행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48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gfcenter/main.do>